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이밍 학술문헌의 메타연구*

김준홍** 고려대학교 언론학 박사수료

김유석***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승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이밍 관련 문헌에 대한 본 메타연구의 목적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주요 학술 논문 전반을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이밍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한점을 기술하면서 미래 연구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개별 학술논문들로서 본 연구자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 관련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최근 10년간 선행연구들 45편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에 기초하여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논구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이밍 관련 연구들의 이론과 연구방법,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자료를 구성하고,

*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 박재영 교수로부터 훌륭한 코멘트를 받았으며, 2009년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황성욱 교수와 익명의 심사위원들이 좋은 논평을 해주었다. 이에 감사 드린다.

**주저자, junnh@hanmail.net

***mediopia@gmail.com

****교신저자, shykim@korea.ac.kr

그 자료들을 토대로 메타 데이터 분석, 메타방법, 메타이론의 분석적 과정을 거쳐 메타연구의 종합(meta-synthesis)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연구의 산출물로서 기존 문헌의 분류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프레임의 효과론과 프레임의 거점 논의에서 기존 연구들을 새롭게 분류하며 비평하였다.

키워드: 헬스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프레임링, 메타연구, 메타 데이터 분석, 메타방법, 메타이론

1. 서론

목표가 되는 인구집단의 건강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개입을 설계하거나 설명하고자 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목표 집단이 가진 태도, 신념, 가치 등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 51차 세계건강회의(World Health Assembly)는 건강증진정책과 실행에 있어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충분히 이용하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연구방법을 제안했었다. 사실 그 이후에도 보건정책의 분야에서 근거(evidence)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해 왔다. 근거중심의 보건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은 개인 및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입에 있어 의학과 사회과학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의해 추동된 정책이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의미한다(Niessen, Grijseels & Rutten, 2000 참조). 이는 보건정책의 한 분야이거나 보건정책과 연관되어 맞물리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근거중심을 위한 접근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근거중심의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논의는 여러 견지에서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임상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유망하다고 여겨졌으며(Farrell & Morris, 2009; Hewison, 2008; Sanderson, 2002), 여전히 헬스 커뮤니케이터를 향하여 의미있는 도전을 던져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헬스 커뮤니케이터는 건강증진을 위한 개입이 근거중심적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 관련 문서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개입 목표 및 실행이 목표 집단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개입의 질병 역학적, 행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존 문헌의 선행 증거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김준홍, 2010).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인접 인문사회과학에서 발전되어 온 프레임(frame) 혹은 프레이밍(framing) 연구가 그동안 이론적 모형을 수

립하여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해 중차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였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 점에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 연구들은 보건의료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근거중심의 실행이 요구하는 바에 대한 유용하고 책임 있는 응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체계적으로 관련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한다면, 이전에는 명료하지 못했던 논점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사료된다.

프레이밍 연구에 접근해 감에 있어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레이밍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서 전개된 논의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프레이밍은 한편으로 메시지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의 수단이자 메시지 전략의 문제이다 (Schneider, 2006; Rothman, Bartel, Wlaschin & Salovey, 2006). 다른 한편으로 프레이밍은 주체들의 행위를 틀 지우고 제약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Goffman, 1974). 따라서 프레이밍은 개인과 공중의 수준에서 의도할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Cho & Salmon, 2007; Niederdeppe, Farrelly, Thomas, Wenter & Weitzenkamp, 2007) 매체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할 때에도 필수적인 개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프레이밍이 현실의 다른 측면을 무시하고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견지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프레이밍 연구가 다양한 연구전통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다양한 연구들의 연구정향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기에 적합한 분석방법이 요청되고 있으며, 따라서 종합적 메타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언급한 대로 프레이밍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연구 관점에서

도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프레이밍 연구가 커뮤니케이션 효과론과 접맥되어 나타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텍스트의 구성이 현실의 다른 측면을 무시하고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인지,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프레이밍 효과 연구는 프레이밍 연구의 일부일 뿐이다. 프레이밍으로 인한 매체나 메시지의 효과 측면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채 프레임 자체 곧 프레임의 유형과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으며, 프레임이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다른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인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와 같이 프레이밍은 양적 연구 전통과 질적 연구 전통 양자에서부터 각기 발전해 온 다양한 진영에서 논의되어 왔다.

프레이밍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의 전통의 연결지점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 다시 말해서 행태주의적 접근과 비판적 접근 등을 상호 연결시켜 주는 프레이밍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연구 전통에서 개발되어 온 장점들을 숙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레이밍 패러다임은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호 대립적인 두 전통, 곧 양적 연구 전통과 질적 연구 전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프레이밍 연구에서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 양적이거나 질적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프레이밍 연구의 주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 결과가 실천적 맥락에서 중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과 건강위험에 직면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이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건강증진 캠페인이나 보건의료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실천적 함의는 점점 더 깊이 요청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이밍 관련 연구들이 그러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 연구지향성을 현저하게 강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레이밍 연구 문헌에 대한 메타

연구를 통해서 미디어 프레임과 메시지 수용자의 심리, 행태적 차원에 나타나는 프레임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메타연구 하고자 하며, 여기에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이밍 그 자체에 주목하여 연구하는 지적 전통들을 포함시켜 메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프레이밍 연구가 다양한 연구전통에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으므로 기존 학술 연구들의 연구정향과 흐름을 전체적이고 살펴보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합한 분석방법이 요청되고 있기에 본 연구는 메타연구를 통해 그러한 시도에 다가서고자 한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이밍 관련 문헌에 대한 본 메타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주요 학술 논문 전반을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이밍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나아가 제한점을 기술하며 더 나아가 미래 연구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이밍 관련 문헌에 대한 본 메타연구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주요 학술 논문 전반을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했듯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근거중심의 실행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고자 하는 실천적 목적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론적 기여점도 있다. 즉 프레이밍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방법의 전통의 연결지점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상호 대립적인 양적 연구 전통과 질적 연구 전통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전통에서 개발되어 온 장점들을 숙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메타연구를 통해서 이전에는 명료하지 못했던 논점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메타분석에는 종합적 메타분석과 분석적 메타분석이 있다(Wallace, 1992; 류준호·윤승금·이영주, 2010). 종합적 메타분석은 연구의 전반적 주제나 방법들을 분석하여 특정 연구영역의 연구정향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방법이며, 반면 분석적 메타분석은 한 가지 개념 혹은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을 분석의 단위로 삼아 측정된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말한다(김훈순, 2004; 류준호·윤승금·이영주, 2010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메타연구는 상대적으로 종합적 메타분석에 근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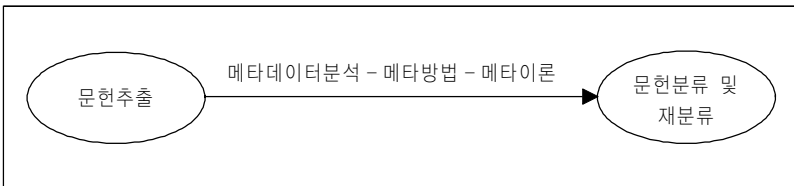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존 학자들이 제안하고 수행했던 메타연구(meta-study)(Colomy, 1992; Paterson, Canam, Joachim & Thorne, 2003; Ritzer, 1988, 1990, 1991, 1992; Zhao, 1991)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메타연구를 위해 선택된 개별 학술논문들에서 사용한 이론과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의 보고는 데이터(data)를 구성한다. 이 데이터가 분석되어 개별연구들의 공통점, 차이점, 유형, 주제 등이 식별되고 이것들이 종합되면 연구되는 대상에 대한 새롭고 확장된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메타 데이터 분석(meta-data analysis)의 단계이다. 메타 데이터 분석은 개별 연구들에서 처리한 자료(processed data)에 대한 분석이면서, 개별 연구들의 결과 보고를 해석함으로써 메타연구자가 구성하는 주제나 범주에 적합시키고, 동시에 다른 연구들의 결과 보고와 상호 비교하는 작업을 주로 포함한다(Zhao, 1991). 둘째, 메타방법(meta-method)의 과정이다. 메타방법은 개별 연구들의 근저에 있는 방법론적 전제들을 검토하면서 그 강점과 약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이다(Zhao, 1991). 셋째, 메타이론(meta-theory)의 단계이다. 메타이론은

선정된 개별연구들을 각각 틀 지우는 이론적 관점을 방법/연구결과/결론 등과 연결해 주는 지적 작업이다. 이러한 메타연구의 각 국면에서 핵심은 이론적, 방법론적 변이가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메타연구는 통상적인 선행 문헌검토와 달리 기존 연구들의 연구정향의 규칙성과 변이를 밝혀 낼 수 있고,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비판적 성찰에 적합하다. 특히 메타연구는 동일한 영역에서 전체 연구를 조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거나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을 누적적으로 살펴보기에도 좋은 방법이다(황상재·박석철, 2004).

본 연구에서 학술논문들의 추출에서부터 그에 대한 비평적 리뷰를 거쳐 분류와 재분류 과정을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메타연구의 분석적 단계를 밟았다. 문헌추출에 뒤이어 문헌분류는 메타연구 단계를 거쳐 수정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문헌은 재분류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인 메타 데이터 분석, 메타방법, 메타이론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메타연구의 종합에 이르는 경로에서 문헌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림 1>은 본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을 도해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에 기초하여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이루어진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임링 관련 연구들의 이론, 연구방법,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자료를 구성하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메타 데이터 분석, 메타방법, 메타이론의 분석적 과정을



<그림1>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

거쳐 메타연구의 종합(meta-synthesis)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연구의 분석과 종합의 과정을 통해 기존 문헌의 분류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프레임의 효과론과 프레임의 거점 논의에서 기존 연구들을 새롭게 분류하며 비평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의 추출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학술논문들로서 본 연구자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임 혹은 프레임링 관련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해외 영어권의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Academic Research Library, Emerald Fulltext, ERIC, Justor, SAGE Journals Onlin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ocial Services Abstracts, Sociological Abstracts와 국내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DBPIA(누리미디어), e-article(한국교육원), KISS(한국학술정보), 뉴 논문을 활용하였다. 실제 서울의 한 대학교의 전자도서관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들에 접근하였다. 구체적인 검색에 있어서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망이론(prospect theory)’, ‘프레임(frame)’, ‘프레임링(fram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등의 키워드와 ‘건강’ 혹은 ‘헬스(health)’, ‘보건(public health)’, ‘영양(nutrition)’, ‘운동(exercise)’, ‘질병(disease)’, ‘보건정책(health policy)’, ‘캠페인(campaign)’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입력함으로써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임 관련 연구들을 추출했다. 연구자의 인지적 한계 내에서 가능한 모든 키워드의 조합을 고려하여 검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견된 기존 양적 메타연구(meta-analysis)

논문이 본 메타연구가 취급하는 연구 분야의 일부에만 한정되는 경우와 그 부분에서만 본 메타연구의 전체 연구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해당 논문도 검색 대상논문에 포함시켜 추출하였다. 분야를 막론하고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이라는 용어를 최소한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는 연구는 본 메타연구에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검색 대상논문들의 출판 시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추출된 연구논문들은 해외논문 32편과 국내논문 13편이었고, 모두 45편이었다. 본 메타연구를 위해 검토한 학술논문들의 출처는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연구자는 조건에 일치하는 논문을 추출하는 데 있어 인지적 편이를 위해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제시된 Scheufele (1999)의 프레이밍 연구의 유형론을 활용하였다. 프레임 관련 연구들은 첫째, 매체(media)의 프레임을 다루는 경우 vs. 수용자(audience)의 프레임을 다루는 경우, 둘째, 프레임이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인 경우 vs. 프레임이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인 경우 두 차원에서 구분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차원을 고려하여 네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Scheufele (1999)의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Scheufele (1999)의 논의가 비단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분야에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Scheufele (1999)의 개념적 분류 틀이 주로 뉴스 프레이밍 연구들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다양한 연구전통들을 포함시켜 이 틀로써 분류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향후 창의적 분류 틀을 구상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Scheufele (1999)의 개념적 분류 틀이 중요한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았기에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Scheufele (1999)의 개념적 분류 틀은 본 연구에서 향후 보다 개선된 분류 틀로 보완되나, 그의 분류 틀은 논문의 분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논문의 추출에 있어서 인지적 편이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레이밍 관련 문헌을 추출하는 데 있어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최소한

4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인지적 편이(heuristic)가 작용하였다. 다만 매체의 프레임에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의 프레임을 포함시켜 선행 연구들을 추출해 내었다. 커뮤니케이션의 송신자의 입장에 서서 프레임을 바라볼 때, 매체의 프레임과 메시지의 프레임을 비교적 동등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추출된 개별 학술연구들은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에서 데이터를 구성하며, 이 데이터를 Scheufele(1999)의 프레임링 연구의 유형론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메타연구를 위하여 추출된 모든 개별 연구들이 용이하게 그의 유형론에 따라 분류되지만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학술연구에서 논의된 특정 프레임이 독립변인도 아니고 종속변인도 아닌 경우가 있었다. 즉 논자에 따라서는(Shih, Wijaya & Brossard, 2008; Elliott, 2007; Souza, 2007; Pratt, Ha & Pratt, 2002; 이동근, 2009; 정의철, 2008a; 정의철, 2008b; 이귀옥·박조원, 2006; 박경숙, 2002) 프레임의 발견 그 자체에 주목하거나 나아가 그 함의를 제시하는 데서 멈추며, 그 프레임이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그런 연구에서는 일종의 변인으로서 프레임을 규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과관계의 방향을 개념적으로 그릴 수 없었기에 독립변인이나 종속변인으로 규정하기 어려웠다. 그 연구들은 예외 없이 텍스트분석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 논자에 따라서는(Greenhalgh & Russell, 2009; Scheider, 2006; Rothman, Bartels, Wlaschin & Salovey, 2006; Dorfman, Lawrence & Woodruff, 2005; Salovey & Williams-Piehora, 2004) 프레임을 말하기는 하지만 프레임을 변인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들이 있었다. 그 연구들은 기존 문헌의 검토, 규범적 처방 제시에 집중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텍스트분석론의 이론적 배경을 지니거나 문헌검토와 규범적 서술의 방법론을 채용하는 연구들

의 상당한 수가 Scheufele (1999)의 프레임 연구의 유형론에 의해 적절하게 분류될 수 없었다.

셋째, Scheufele (1999)는 매체의 프레임 vs. 수용자의 프레임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커뮤니케이션 맥락(context)의 프레임도 있다(Goffman, 1974). 따라서 논자에 따라서는(Tavory & Swidler, 2009; Elliott, 2007; Rodney & Jones, 2002) 매체의 프레임이나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이 아닌 소통의 맥락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연구들을 Scheufele (1999)의 유형론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점에서 그의 분류체계인 4가지 유형론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표 1>에서 Scheufele (1999)의 유형론에 따라 분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문헌을 분류하였다.

2) 문헌의 분류방법

본 연구 이전에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임 혹은 프레임링 연구들을 개관하고 분류한 선행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추출된 학술연구 문헌을 본격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프레임 연구방법, 프레임 모델, 프레임 유형을 분류한 선행 연구들(김원용·이동훈, 2005; Hallahan, 1999; 이준용, 2000)을 참고하였다.

우선 김원용·이동훈(2005)은 프레임의 비체계성과 산만성을 보완하기 위해 프레임 형식의 보편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첫째, 행위 vs. 추상, 둘째, 발화 vs. 결과의 두 축(차원)을 활용한 교차 분석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들이 시도한 프레임 형식의 보편적 유형화는, 그 유형화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프레임 연구가 지니는 실천적 함의를 고려할 때 내용적 적합성을 배제하고 프레임 형식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연구 정향은 본 연구자가 추구하는 정향과 차이

〈표 1〉 Scheufele(1999)의 프레임링 연구 유형론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류

Studies Examining Frames as...	Studies Examining Frames as...	
	Dependent Variable(종속변인)	Independent Variable(독립변인)
Media Frame (매체의 프레임)	n. a.	Hoffner & Ye(2009); Kwan(2009); O'Keefe & Jensen(2009, 2008); Parrot, Tennant, Olejnik & Poudevigne(2008); Cho & Boster(2008); Goodall & Appiah(2008); Rogers & Peterson(2008); Shen & Dillard(2007); Morgan, Chewing, Davis & Dicorcia(2007); Siu(2007); Reinhart, Marshall, Freeley & Tutzauer(2007); Arora, Stone & Arora(2006); Rothman et al.(2006); Harrison(2005); Jones, Sinclair, Rhodes Courneya(2004); Roth, Dunsby & Bero(2003); Jones & Sinclair(2003); Armstrong, Schwartz, Fitzgerald & Ubel(2002); Assema, Martens, Ruiters & Brug(2001); 이세영·박현순(2009); 김수진·차희원(2009); 최현경·이명천·김정현(2008) 이종민·류춘렬·박상희(2007); 박성희(2006); 박유식·경중수(2002); 조형오(2000); 조형오·김병희(2000)
Individual Frame (개인의 프레임)	Boyle&Carbone-Lopez(2006)	Kwan(2009); Luther & Zhou(2005); Roth, Dunsby & Bero(2003)

* 출처: Scheufele(1999, p.109)에서 가져와 필자가 분류 가능한 연구대상 논문들을 각 영역(cell)에 배치하였음. 여기에서 분류된 논문들은 모두 28편으로 추출된 전체논문 45편에서 분류 불가능한 17편이 빠진 숫자임.

**모두 Roth, Dunsby & Bero(2003)의 FDA 프레임과 시민들의 대항적 프레임은 매체가 전달하는 프레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이기도 하므로 두 영역에 동시에 배치되었음. Kwan(2009)도 마찬가지로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이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매체가 전달하는 프레임이기도 하므로 두 영역에 동시에 배치되었음.

***n. a.: Not Applicable

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반의 프레임 연구들을 개관, 정리, 분류한 연구는 Hallahan (1999) 과 이준웅 (2000) 이 있다. 각 연구별로 살펴보면, 전자는 프레임의 일곱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PR 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 함의를 논구했고 (Hallahan, 1999), 후자는 프레임 연구의 다섯 가지 접근법의 차이점과 특징을 제시하고 각 연구 접근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이준웅, 2000). 두 연구자의 분류의 준거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 2>에서 보듯이 두 연구자의 분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두 분류 간 차이보다 크다. Hallahan (1999) 은 무엇이 프레임 되었나(What is framed?)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분류의 단서를 잡은 반면, 이준웅(2000) 은 일차적으로 연구문제가 제시된 학문적 배경과 연구결과가 적용되는 분야를 근거로, 결정적으로는 각 분야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분류의 준거를 마련한 것인데, 실제의 분류는 두 연구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연구자가 분류한 방식을 통합하여 모델(이론) 별 분류방식을 채용하였다. 즉 상황(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선택과 행동(전망 혹은 예상 이론), 이슈(사회운동론), 책임(사회심리이론), 뉴스(텍스트분석론)의 5가지 유형의 분류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렇게 분류 방식을 결정한 데에는 본 연구에서 두 선행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프레임 연구 유형만을 분석틀로 채용함으로써 함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었다. 즉 Hallahan (1999) 의 속성 프레임이 강조하는 인지적 편향성은 전망 이론적 접근 등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속성 프레임은 본 분석틀에서 배제하였고, 이준웅(2000) 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은 다른 유형의 프레임 연구와 연결하여 시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라는 점에서 배제하였다. 즉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은 모든 프레임 모델(이론)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은 다른 연구방법들과의 관계에서 배타적 영역이 아니라 보완적 영역이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에 대한 이준웅(2000)의 논의는 상당 부분 뉴스 프레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유형의 프레임 연구 전통이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과 접맥해서 생길 수 있는 연구 가능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였다는 판단 하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표 2>

<표 2> 선행연구에서 프레임 모델 및 접근 방법 분류의 준거, 주요 내용 및 적용

Hallahan(1999)의 준거: 무엇이 프레임 되었나?	이준웅(2000)의 주요 준거: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차이	주요 내용, 적용
상황(situations)	사회적 상호작용 접근 (The social interactionist studies)	- 맥락에 관련된 지식과 인지적 프레임 - 담론 분석, 협상 등의 상호작용 분석
속성(attributes)	*	- 사물이나 사람의 특징이 강조되거나 그림으로써 다른 측면이 무시됨으로 편향성 발생 - 소비자행동, 정치광고 연구
위험 선택(risky choice) & 행동(actions)**	전망/예상 이론적 접근 (The prospect theory and its variants)	- 사람들은 이익 상황보다 손실 상황에서 더 위험 추구 - 보건 커뮤니케이션, 조직관리,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적용 분야
이슈(issues)	사회운동론적 접근 (The social mobilization perspective)	- 경쟁하는 집단 간에 사회문제와 쟁점이 정의되는 방식을 둘러싼 투쟁 - 인권운동, 노동운동 등
책임(responsibility)	***	-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원인을 내적/외적 요인들에 귀인 하는 경향성이 존재함 - 개인에 대한 비난과 사회구조에 대한 비난이 대립되는 다양한 사건들
뉴스(news)	텍스트 분석적 접근 (The text-analytic approach)	- 뉴스 텍스트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는 과정, 하나의 뉴스 주제에 대한 대립하는 관점이 뉴스 프레임에 통해 구성되는 과정 - 뉴스 프레임 개념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연구는 매우 많음
****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 (The communication effect approach)	-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 다양한 뉴스 프레임에 따라 뉴스수용자의 뉴스에 대한 인식과 기억에 차이가 있음

*이준웅(2000)은 이 영역을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Kallahan(1999)에서 위험 선택과 행동을 별도의 모형으로 보았으나, 두 모델의 지적 근원이 같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 합쳤다.

***이준웅(2000)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에서 일부 논의하였다.

****Kallahan(1999)에서 이 영역을 별도로 논의한 바가 없었다.

출처: Hallahan(1999, p.210)과 이준웅(2000, 121~122쪽)에서 제시된 도표를 포함한 두 연구논문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체계에 영향을 미친 Hallahan (1999) 과 이준웅(2000)의 분류체계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다음으로 <표 3>의 가로축은 <표 2>의 세로축인 모델(이론) 별 분류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의 세로축은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세부적 주제 분야에 따라 건강위기행동(health risky behavior) 분야, 질병(disease) 분야, 보건의료정책(health and medical policy) 이슈 분야, 기타 분야로 다른 분류의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세부 주제 분야로 구분한 방식은 기존 선행연구인 한미정(2005)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녀는 건강관련 커뮤니케이션 연구논문의 주제를 건강위기행동, 건강위기인식, 질병, 신체이미지, 의료관련 주제로 모두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기행동’이라는 용어와 ‘질병’이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건강위기인식을 다룬 논문들은 대개 건강위기행동과의 관련성 안에서 논의되므로 본 연구에서 따로 세부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신체이미지 역시 다이어트 행동과 같은 건강위기행동과의 관련성 안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따로 세부주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 한미정(2005)은 의료관련 주제를 의약분쟁, 의약분업, 의료광고 등의 소주제들을 다룬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소주제들은 ‘보건의료정책 이슈’라는 주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미정(2005)의 5분류 체계를 수정, 보완하여 3분류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게다가 ‘기타’ 주제 분야를 추가하여 결국 4분류 체계—건강위기행동, 질병, 보건의료정책 이슈, 그리고 기타 분야—를 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박성철·최진명·오상화(2008)는 한국 및 미국에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토픽을 건강일반, 의료커뮤니케이션, 담배/흡연, 음주, 암/유방암, 에이즈/HIV/safe sex, 장기기증, 마약/마리화나, 죽음/말기환자, 당뇨병, 비만/다이어트, 폭력/범죄, 헬스정보/리터러시, 가족 헬스커뮤니케이션, 헬스정책/윤리, 음식물안전, 심장병, 기

〈표 3〉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의 분류 체계

모델(이론)	상황(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선택, 행동 (전망이론)	이슈 (사회운동론)	책임 (사회심리론)	뉴스 (텍스트분석론)
주제분야					
건강위기행동					
질병	국내·외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프레임들과 프레임 연구들이 영역별로 분류될 것임				
보건의료정책 이슈					
기타					

타의 18가지 주제로 분류한 바가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채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류이다. 그러한 분류를 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재분류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4분류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4. 메타연구결과

1) 메타 데이터 분석(Meta-data analysis)

메타 데이터 분석은 선정된 개별 연구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일차적 분석이다(Zhao, 1991 참고). 메타 데이터 분석은 개별 연구의 결과 보고를 메타연구자가 구성하는 주제나 범주에 적합 시키고, 동시에 다른 연구들의 결과 보고와 상호 비교하는 작업을 주로 포함한다.

우선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링을 다룬 해외 학술논문들에서 발견되는 프레임들을 앞의 프레임 연구들에 대한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각 영역(cell)에 배치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그 프레임들을 다룬 해외 학술 연구논문들을 마찬가지로의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각 영역에 배치하면 〈표 5〉와 같다. 마찬가지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국내 학술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프레임들을 같은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분류한 것이 〈표 6〉이고, 그 프레임들을 다룬 국내 학술 연구논문들을 같은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분류한 것이 〈표 7〉이다. 해외 문헌들은 모두 32편이

추출되었고 국내 문헌들은 모두 13편이 추출되었으므로 메타분석의 데이터를 구성하는 전체 문헌은 모두 45편이었다.

우선 해외의 문헌 32편을 분류한 <표 4>와 <표 5>를 보면, 기타 주제 분야)는 제하고 보면 15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을 제외한 12개 영역에서 프레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연구들 중 전망이론(n=17)과 사회운동론(n=5) 그리고 텍스트분석론(n=7)에 배경을 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이론(n=3)과 사회심리론(n=2)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1) 기타 주제 분야로 분류된 Boyle & Carbone-Lopez(2006)은 FGC(Female Genital Cutting) 이슈를 다루고 있었다.

〈표 4〉 해외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의 분류

모델(이론) 주제 분야	상황(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선택, 행동 (전망이론)	이슈 (사회운동론)	책임 (사회심리론)	뉴스 (텍스트분석론)
건강위기행동	군들을 사용하는 의미의 프레임	이득/손실 프레임	n. a.	n. a.	텔레비전의 식품영양 관련 프레임
질병	AIDS 예방홍보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지니는 매력적 프레임	이득/손실 프레임	n. a.	원인과 해법의 프레임	위중도(심각성), 원인과 해법, 취약계층 프레임; 사회적 낙인의 프레임; 경제적 결과, 책임, 갈등, 리더십, 인간적 관심 프레임; 의료적, 사회정의, 시장선택 프레임
보건의료정책 이슈	비만자는 실패한 시민이라는 프레임	이득/손실 프레임	시장정의 프레임; 사회정의 프레임; 집합적 행동 프레임, 진단과 처방 프레임, 과학지상의 프레임, 대항적 프레임, 이데올로기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 공중보건, 경제, 인권, 중립적 프레임; 근거기반의 정책형성 프레임; 결과, 행동, 불확실성, 확증, 갈등, 새로운 증거 프레임	비만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개인의 문제로 귀인 하는 프레임	해법 프레임; 장기기증에 관한 부정적 프레임(메타, 이차적, 삼차적 프레임)
기타(FGC 이슈)	n. a.	n. a.	의료적 권리, 여성인권, 나쁜 관습 프레임	n. a.	n. a.

* n. a.: Not Applicable

〈표 5〉 해외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연구들의 분류

모델(이론) 주제분야	상황(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선택, 행동 (전망이론)	이슈 (사회운동론)	책임 (사회심리론)	뉴스 (텍스트분석론)
건강위기행동	Tavory & Swidler(2009)	Hofner & Ye(2009); Goodall & Appiah (2008); Shen & Dillard(2007); O'Keefe & Jensen (2008, 2009); Cho & Boster(2008); Siu(2007); Scheider(2006); Rothman, Bartels, Wlaschin & Salovey (2006); Salovey & Williams-Piehora(2004); Armstrong, Schwartz, Fitzerald & Ubel(2002); Assema, Martens, Ruiter & Brug(2001); Jones & Sinclair(2003); Parrot, Tennant, Olejnik & Poudevigne (2008); Jones, Sinclair, Rhodes & Courneya(2004); Arora, Stone, & Arora (2006)	n. a.	n. a.	Harrison(2005)
질병	Rodney & Jones(2002)	O'Keefe & Jensen (2008, 2009); Shen & Dillard(2007)	n. a.	Souza(2007)	Shih, Wijaya & Brossard(2008) Souza(2007); Pratt, Ha & Pratt(2002); Luther & Zhou(2005)
보건의료정책이슈	Elliott(2007)	Reinhart, Marshall, Freeley & Tutzauer (2007); Schneider(2006)	Greenhalgh & Russell(2009); Rogers & Peterson(2008);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 Roth, Dunsby & Bero(2003)	Elliott(2007)	Kwan(2009); Morgan, Chewing, Davis & Dicorcchia(2007)
기타 (FGC 이슈)			Boyle & Carbone-Lopez (2006)		

* 영역 안에 있는 연구들 중에서 영역 간 중복되는 연구들이 있음. 이는 취급하는 프레임의 일부 (Souza, 2007) 혹은 전부(Elliott, 2007)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경우이거나, 건강위기행동이 질병의 예방/검진 행동인 경우(O'Keefe & Jensen, 2008, 2009; Shen & Dillard, 2007)임.

** 본 연구 대상 논문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국 학자가 쓴 글이 Greenhalgh & Russell(2009)이고, 캐나다 학자가 쓴 글이 Elliott(2007), Jones, Sinclair, Rhodes & Courneya(2004), Jones & Sinclair(2003)이며, 홍콩 학자의 유일한 글은 Rodney & Jones(2002)임. 나머지 해외논문들은 미국의 학자들이 쓴 글임.

다음으로 국내 문헌 13편을 분류한 <표 6>과 <표 7>을 보면, 기타 주제 분야를 제외하고 보면 15개 영역 중에서 단 4개의 영역에서만 프레임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개 영역 중에서 11개 영역에서 단 한편의 연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델(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전망이론과 텍스트분석론을 배경으로 한 연구들이 각각 7편과 6편으로 프레임 연구 지형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볼 때 이론적으로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²⁾.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사회운동론, 사회심리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국내 학술연구논문들은 단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2) 물론 해외 연구 지형과 국내 연구 지형 간의 비교는 비교분석의 단위 차이로 보아 비교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연구들 중 5편을 제외하고 27편이 미국 학자들의 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한·미간 비교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표 6〉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의 분류

모델(이론) 주제 분야	상황(사회적 상호작용이론)	선택, 행동 (전망이론)	이슈 (사회운동론)	책임 (사회심리론)	뉴스 (텍스트분석론)
건강위기행동	n. a.	이득/손실 프레임	n. a.	n. a.	n. a.
질병	n. a.	n. a.	n. a.	n. a.	지원감동프레임, 사건사고프레임, 인권프레임, 위기프레임 교육예방프레임, 생의학프레임, 사회경제역사프레임, 정책프레임; 사회정의, 제네릭 약품, 자비로운 도움, 의료적 인종차별, 무역 분쟁, 테러리즘, 문화적 침묵의 프레임 인지적 프레임(주제적, 에피소드적 프레임; 추상적, 구체적 프레임; 원인, 해결 프레임; 주제중심적, 사건중심적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대책 프레임, 책임 프레임; 권위주의 정책 뉴스 프레임; 대항적 뉴스 프레임; 기사프레임(책임소재, 갈등,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확산 프레임); 행위자 프레임; 각 행위 주체 간 이분법적 프레임
보건의료정책 이슈	n. a.	이득/손실 프레임	n. a.	n. a.	인인지적 프레임(주제적, 에피소드적 프레임; 추상적, 구체적 프레임; 원인, 해결 프레임; 주제중심적, 사건중심적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대책 프레임, 책임 프레임; 권위주의 정책 뉴스 프레임; 대항적 뉴스 프레임; 기사프레임(책임소재, 갈등,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확산 프레임); 행위자 프레임; 각 행위 주체 간 이분법적 프레임
기타	n. a.	n. a.	n. a.	n. a.	n. a.

* n. a.: Not Applicable

〈표 7〉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연구들의 분류

주제 분야	모델(이론) 상호작용이론	선택, 행동 (전망이론)	이슈 (사회운동론)	책임 (사회심리론)	뉴스 (텍스트분석론)
건강위기행동	n. a.	이종민 · 류춘열 · 박상희(2007); 조형오(2000); 조형오 · 김병희 (2000); 최현경 · 이명천 · 김정현(2008)	n. a.	n. a.	n. a.
질병	n. a.	n. a.	n. a.	n. a.	정의철(2008a); 정의철(2008b)
보건의료정책 이슈	n. a.	박유식 · 경종수 (2002); 이세영 · 박현순 (2009); 김수진 · 차희원 (2009)	n. a.	n. a.	박경숙(2002); 박성희(2006); 이동근(2009); 이귀옥 · 박조원 (2006)
기타	n. a.	n. a.	n. a.	n. a.	n. a.

* n. a.: Not Applicable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진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연구와 해외연구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국내·외에서 식습관(Assema et al., 2001), 흡연(이종민 · 류춘열 · 박상희, 2007; 조형오, 2000; Goodal & Appiah, 2008), 운동(조형오 · 김병희, 2000; Parrot et al., 2008; Siu, 2007, Arora, Stone & Arora, 2006; Jones et al., 2004; Jones & Sinclair, 2003), 피부건강(Hoffner & Ye, 2009), 마약(Cho & Boster, 2008), 의료의사결정(Armstrong et al., 2002)을 세부 주제로 한 건강위기행동 분야에서 전망이론적 배경의 프레임 연구들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해외의 연구들은 건강 위기행동 분야와 더불어 질병 분야의 프레임 연구까지 전망이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즉 해외 연구들은 각종 암 예방과 검진(O'Keefe & Jensen, 2008, 2009), 플루와 녹내장 등(Shen & Dillard, 2007) 다양한 질병 영역들에도 전망이론적 프레임 개념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망이론적 배경의 프레임 연구 진영에서 국내와 해외 연구의 또 다

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 연구들 중에서 방사선조사식품 확대허용 정책에 대한 동의(이세영·박현순, 2009), 보건 관련 공익광고에 대한 태도 등(박유식·경종수, 2002), 헌혈 관련 태도(김수진·차희원, 2009)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들은 모두 이득/손실 메시지 프레이밍을 독립변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메시지 수용자 개인의 건강위기행동/질병 분야가 아닌 공익적 캠페인 이슈나 보건정책홍보 이슈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메시지 수용자의 건강 위기행동/질병에 치중하는 해외의 전망이론적 배경의 연구 정향성과 차이가 나는 점이었다. 물론 해외에서도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주제로 한 공익적 캠페인 메시지에 주목하는 연구(Reinhart et al., 2007) 1편이 발견되었다.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와 저자의 직업적 배경을 통해서 볼 때, 해외 연구들의 주된 지적 뿌리는 커뮤니케이션 및 저널리즘 분야(n=15)가 과반수에 가까워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의료 분야(n=4), 사회학 분야(n=3), 심리학 분야(n=3), 체육학 분야(n=3), 그리고 마케팅 분야(n=1)의 순서였다. 반면 국내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언론학 및 방송학 분야(n=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광고홍보학 분야(n=4)이었다.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보건정책 및 보건사회학, 사회학, 심리학, 체육학 분야의 프레이밍 연구는 단 한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연구 지형의 이론적 편중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 주는 결과였다.

본 연구자가 Hallahan(1999) 과 이준웅(2000)을 통합, 개선하여 한 축을 구성하고 게다가 헬스 커뮤니케이션 주제 분야를 다른 축으로 해서 구성한 분류체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연구논문 혹은 프레임이 국내·외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부록에서 제시한 개별연구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하나의 연구에서 단일하지만은 않았다. 전망이론을 배경으로 하더라도 해외 연구들 일부는 사회적 비교이론(Hoffner & Ye,

2009), 정서심리이론(Shen & Dillard, 2007), 정교화가능성이론(Jones & Sinclair, 2003), 계획행동이론(Jones et al., 2004)을 전망이론에 가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에서 그런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외 연구가 텍스트분석론을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하더라도 이슈주목주기이론(Shih, Wijaya & Brossard, 2008), 의제설정이론(Pratt, Ha & Pratt, 2002)을 가미한 해외 연구들이 존재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메타연구를 목적으로 추출된 학술연구들 중에서 특별한 이론적 배경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연구(Harrison, 2005)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시해야 할 점은 예측한 다섯 가지 모형(이론)과 다르게 해석 및 비판이론(Greenhalgh & Russell, 2009), 개혁확산이론(Rogers & Peterson, 2008), 사회정의 및 사회윤리론(Dorfman, Lawrence & Woodruff, 2005), 그리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Boyle & Carbone-Lopez, 2006)를 주요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한 연구들 네 편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가지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며, 기존 분류체계를 무력화 시킬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이론적 정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즉 사회철학(사회정의 및 윤리론, 해석 및 비판이론)과 사회 및 정책이론(신제도주의, 개혁확산이론) 분야의 연구들이 프레임 혹은 프레임링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은 사회철학/사회이론/정책이론을 주된 이론적 원천으로 삼으면서 프레임을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프레임의 이론적 입장을 명백하게 개진하지 않은 것들(Rogers & Peterson, 2008; Boyle & Carbone-Lopez, 2006)도 있었으나, 논의하는 프레임이 근거기반의 정책형성 프레임(Greenhalgh & Russell, 2009),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프레임(Dorfman, Lawrence & Woodruff, 2005)의 경우에는 대립되는 철학적·규범적 세계관을 프레임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이슈 프레임(사회운동론이 말하는 프레임)보다 상위의 거시적 개념을 담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표 3>~<표

7)의 가로축의 차원에 6번째 모델(이론)로서 세계관(사회철학 및 사회이론)을 추가하여 개선된 분류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표 3>~<표 7>을 제시함에 있어 그러한 방식으로 분류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았다. 대신 이슈(사회운동론)의 프레임에 그러한 세계관(사회철학 및 사회이론)의 프레임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이슈(사회운동론) 프레임은 Hallahan(1999)이 범주화한 이슈 프레임이나 이준웅(2000)이 범주화한 사회운동론적 접근방법보다 더 넓은 범주를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내에 특정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프레임링/세계관의 갈등은 거시적 사회철학과 이론 및 정책이론의 견지에서 규명될 수 있으나, 현실세계에서 조직과 운동의 견지에서 가시화되고 식별 가능한 것이 된다.

2) 메타방법(Meta-method)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인 메타방법은 연구의 근저에 있는 방법론적 전제들을 검토하면서 그 강점과 약점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Zhao, 1991). 국내·외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임링 분석 연구들이 취하는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수량적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양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고, 이론의 진술, 역사적·철학적 분석, 담론분석, 규범의 제시, 인터뷰, 문헌검토 등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의 유형을 다음 <표 8>에서 제시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은 모두 23편의 국내·외 논문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모두 22편의 국내·외 논문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연구방법의 유형

유형	주요 연구방법	해외 논문 빈도	국내 논문 빈도
양적 연구방법	실험설계와 통계분석	12	7
	양적 메타분석	2	0
	실험설계 아닌 통계분석	2	0
질적 연구방법	질적 프레임 분석	8	6
	심층인터뷰	2	0
	문헌고찰	4	0
	해석이론, 비판이론적 방법	1	0
	철학적, 규범적 연구방법	1	0
계	45	32	13

(1) 양적 연구방법

본 메타연구를 위해 데이터로 추출된 국내·외 45편의 연구논문들이 취하는 연구방법들 중에서 단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주는 연구방법은 실험설계와 통계분석 방법으로서 모두 19편에 해당했다(Hoffner & Ye, 2009; Goodall & Appiah, 2008; Parrot, Tennant, Olejnik & Poudevigne, 2008; Cho & Boster, 2008; Shen & Dillard, 2007; Reinhart, Marshall, Freeley & Tutzauer, 2007; Siu, 2007; Arora, Stone, & Arora, 2006; Jones, Sinclair, Rhodes & Courneya, 2004; Jones & Sinclair, 2003; Armstrong, Schwartz, Fitzgerald & Ubel, 2002; Assema, Martens, Ruiter & Brug, 2001; 이세영·박현순, 2009; 김수진·차희원, 2009; 최현경·이명천·김정현, 2008;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박유식·경중수, 2002; 조형오, 2000; 조형오·김병희, 2000). 이 국내·외 19편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전망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은 실험설계를 통해서 메시지의 이득/손실 프레임을 실험변인으로 삼아서 메시지 수용자의 정서, 인지, 태도, 행동의도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서 실험 데이터를 분산분석, 카이자승검정,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검정과 구조계수 검정 등의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망이론에 토대를 둔 실험연구들이 과학적 엄밀성의 추구 정도에서 동일하지는 않았다. 차별화된 연구들로는 반복측정실험설계로 신뢰도를 높인 연구들(Shen & Dillard, 2007; Reinhart et al., 2007; Jones & Sinclair, 2003)이 발견되었으며, 차이검정이나 분산분석 혹은 카이제곱검정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정교한 구조방정식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한 연구들(조형오, 2000; Shen & Dillard, 2007)이 있었다.

19편의 실험연구들 중 7편이 단순히 이득/손실 프레임을 실험에서 예측변인 혹은 독립변인으로 고려하는 데 멈추지 않고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들을 동시에 모형에서 고려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한 조절변인들은 성별과 메시지에 포함된 본받고자 하는 인물의 건강상태(Hoffner & Ye, 2009), 인지된 규범의 수준(Cho & Boster, 2008), 기폭과 메시지 정보원(Siu, 2007), 공중집단(김수진·차희원, 2009), 성별과 운전여부(최현경·이명천·김정현, 2008), 개인적 관여도와 상황적 관여도(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비만개연성과 신체 소구와 심리소구의 방향(조형오·김병희, 2000)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개변인을 실험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서 고려하는 연구모형은 모두 3편으로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해당 연구들에서 매개변인으로 고려된 것은 BAS/BIS의 신경체계, 정서, 인지 및 태도(Shen & Dillard, 2007), 조작적 의도의 지각과 심리적 반발(Reinhart et al., 2007), 광고 태도 및 흡연속성신념(조형오, 2000)이었다.

전망이론에 토대를 둔 연구들 대부분이 실험설계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전망이론 진영에서 문헌검토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해외 연구들이 세 편 발견되었다³⁾(Schneider, 2006; Rothman et al., 2006; Salovey & Williams-Piehora, 2004). Schneider(2006)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메시지 전략이 필요하다

3) 전망이론에 토대를 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은 뒤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논할 때 적어야 하나, 후술하는 O'Keefe & Jensen(2008, 2009)의 양적 메타분석과의 관계 때문에 미리 적었음을 밝힌다.

는 규범을 제시하였고, 후자는 질적 문헌검토를 통하여 전망이론의 메시지 전략을 위한 이론적 지형을 다지고 있는 논문이었다. 특히 Rothman et al. (2006)은 후술하는 O'Keefe & Jensen (2008, 2009)의 메타분석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논문이다. Rothman et al. (2006)은 주로 암 치료를 주제로 한 광범위한 문헌검토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득 프레임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행동들 — 예컨대, 선크림이나 콘돔의 사용 — 을 겨냥할 때 보다 효과적인 반면, 손실 프레임은 질병의 존재를 검진하는 행동들 — 예컨대, 결장경 검사(colonoscopy) 혹은 유선 촬영(mammography) — 을 겨냥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⁴⁾. Williams-Piehora (2004)는 Rothman et al. (2006)과 마찬가지로 심리학과 교수들이 쓴 논문인데,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실험설계 연구를 정당화하고 이득/손실 프레임의 효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영역들을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탐색하는 논문이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Rothman et al. (2006)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이론적 논문이었다.

또한 전망이론에 토대를 둔 연구들 대부분이 실험설계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 외에도 양적 메타분석(meta-analysis)을 통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이 두 편 발견되었다(O'Keefe & Jensen, 2008, 2009). 최근 O'Keefe & Jensen (2008, 2009)의 등장으로 Rothman 등의 가설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다. 이득/손실 메시지 프레임과 위험 커뮤니케이션 태도에 대한 메타연구에서 O'Keefe & Jensen (2008)은 건강위기행동의 영역이 검진행동/예방행동인가에 따라 메시지의 프레임 효과가 달라진다는 기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검진행동은 손실 프레임이 효과적이고 예방행

4) 주로 Rothman과 Salovey와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1990년대 후반에 와서 손실 프레임과 이득 프레임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으며, 이들은 손실 프레임은 현존하는 질병의 검진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이득 프레임은 질병의 장래 발생의 예방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출간 시기를 지난 10년간으로 제한하였기에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Rothman & Salovey (1997)와 Rothman et al. (1999) 참고.

동은 이득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이라는 일반화에 대해 반박하면서 보다 세분화된 건강행동 분야에 따라서 그 효과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준홍·윤영민, 2010, 88쪽).

O'Keefe & Jensen(2008, 2009)의 메타분석 방법은 기존 전망이론 진영의 프레이밍 효과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준홍·윤영민, 2010, 87~89쪽 참조). 이들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피부암 검사 등 질병의 검진 행동, 자외선 노출의 방지 등 질병의 예방 행동을 포함하여 메시지가 옹호하는 주제(topic of advocacy)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고(O'Keefe & Jensen, 2008), 질병의 검진 영역을 유방암 검진인 유선촬영, 피부암 자가진단, 결장암 등의 암 진단, 치아 질환의 검진, 그리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의 잡다한 검진의 다섯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O'Keefe & Jensen, 2009). 즉 메타분석의 힘과 더불어 특정 질병과 연계되는 건강행동의 영역(domain)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점에 이들 방법론의 강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은 최초로 손실/이득 메시지 프레이밍에서 '핵심 상태의 표현(kernel state phrasing)' 혹은 '핵심 상태의 언어적 재현(linguistic representation of kernel state)'을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여 메타분석에 반영하였다(O'Keefe & Jensen, 2008, 2009)⁵⁾.

5) 이것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Rothman & Salovey(1997)가 최초였으나, O'Keefe와 Jensen은 메타분석에 '핵심 상태의 표현'을 주요 조절변인으로 취급함으로써 가장 진지하게 분석에서 고려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프레임 된 메시지가 묘사하는 최종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가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the outcome described is a desirable or an undesirable one?)의 차원이 있다. 둘째, 프레임 된 메시지가 묘사하는 최종 결과가 획득되는 것인가 혹은 회피되는 것인가?(the outcome described is one that is attained or avoided?)의 차원이 있다. 그렇다면 이득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 '핵심 상태의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람직한 결과가 획득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회피되는 것이다. 손실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핵심 상태의 표현'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람직한 결과가 회피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획득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험연구는 아니지만 통계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해외에서 2편 발견되었다(Harrison, 2005; Boyle & Carbone-Lopez, 2006). 각각 요인분석/위계적 회귀분석을 그리고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Harrison(2005)의 이론적 배경은 전망이론에 토대를 두고 앓고 있었으며, 특히 Boyle & Carbone-Lopez(2006)는 사회학적 신체도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2) 질적 연구방법

우선 전망이론 진영에 있지만 문헌검토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해외 연구들이 세 편 발견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Schneider, 2006; Rothman et al., 2006; Salovey & Williams-Piehora, 2004). 그 외에도 문헌검토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역사적 담론분석을 가미한 연구로 Elliott(2007)가 있다. 그러므로 추출된 연구들 중에서 문헌검토의 질적 방법을 주로 사용한 연구는 모두 4편이었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레임 분석 연구들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논문들은 질적 프레임 분석을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었다. 신문기사, 방송 스크립트, 정부자료, 인터뷰 녹취자료 등 여러 텍스트에 대한 질적 프레임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한 국내·외 논문들이 모두 14편으로 가장 많았다(Kwan, 2009; Shih, Wijava & Brossard, 2008; Morgan et al., 2007; Souza, 2007; Luther & Zhou, 2005; Roth, Dunsby & Bero, 2003; Pratt, Ha & Pratt, 2002; Rodney & Jones, 2002; 이동근, 2009; 정의철, 2008a; 정의철, 2008b; 이귀옥·박조원, 2006; 박성희 2006; 박경숙, 2002).

그러나 이 14편의 논문들 중 대다수가 질적 프레임 분석에 다른 질적 연구방법을 가미하였다. 가미된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근거이론(Souza, 2007), 질병별 이슈주목주기의 비교분석(Shih, Wijava & Brossard, 2008), 매체 간 프레임 비교분석(Luther & Zhou, 2005; 이동근, 2009; 정의철, 2008b), 뉴스 프레임의 변화 분석(이귀옥·박조원, 2006), 역사

적 분석(Roth, Dunsby & Bero, 2003), 담론분석(Rodney & Jones, 2002; 정의철, 2008a), 언론규범의 제시(Pratt, Ha & Pratt, 2002; 이귀옥·박조원, 2006; 박성희, 2006; 박경숙, 2002), 그리고 인터뷰(정의철, 2008a)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의철(2008a)은 질적 프레임 분석과 담론분석 및 심층 인터뷰 방법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고 있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인터뷰를 주된 질적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연구는 모두 2편이었다(Tavory & Swidler, 2009; Rogers & Peterson, 2008). 공중보건의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 치중한 연구는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의 1편이었다⁶⁾. 마지막으로 프레임에 대한 해석이론적, 비판이론적 논평을 가지고 있는 논문은 1편으로 Greenhalgh & Russell(2009)이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다른 논문들이 사용한 방법론인 질적 프레임 분석, 심층 인터뷰, 문헌고찰과 차별되는 비판이론적 방법론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었다.

〈표 8〉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볼 때, 해외와 국내 각각에 있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연구는 양적, 질적 방법론이 그 수에 있어서는 거의 대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해외 논문들은 양적, 질적 각 연구방법론 안에서도 세부적인 연구방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데 반하여, 국내 연구논문들은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실험설계와 실험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에,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질적 프레임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내 연구들은 해외연구들에 비하여 방법론적으로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6) 전술한 대로 질적 프레임 분석을 주로 사용하고 거기에 규범적 처방을 가미하고 있는 연구가 3편이 더 있었다.

3) 메타이론(Meta-theory)

메타이론화(meta-theorizing)의 단계는 메타연구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서 선정된 각 개별연구를 틀 지우는 이론적 발견과 발전을 방법/연구결과/결론 등과 연결하여 주는 종합적 지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메타이론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분류체계의 개선, 프레이밍 효과의 검증과 이론화, 그리고 프레이밍이 있는 거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논점을 의미 있게 함으로써 향후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이밍 연구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논구하고자 하였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분류체계의 개선

Scheufele (1999)의 프레이밍 연구의 유형론이 텍스트분석론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거나 질적 방법론을 채용하는 다수 연구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와 맥락의 프레이밍 연구를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발견된 프레이밍 vs. 전제된 프레이밍 차원을 구성하였다. 부록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연구들은 프레이밍을 발견하든지 프레이밍을 전제한다. ‘발견된 프레이밍’ 연구는 연구 목적이 특정 절차를 거쳐 프레이밍을 탐색하고 찾는 것이며 그 함의를 논구하는 것이다. 그 프레이밍은 매체나 메시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행위자의 인지적 해석 안에 있을 수도 있으며, 특정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맥락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 아니면 그것들 안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도 있다. ‘전제된 프레이밍’ 연구는 이미 선행 연구 등을 통해 기존에 함의 가능한 메시지나 미디어 혹은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이밍의 존재를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발견된 프레이밍 vs. 전제된 프레이밍 차원 말고도 기존의 매체 프레이밍 vs. 개인의 인지적 프레이밍 차원에 ‘맥락의 프레이밍’을 더하여 차원을 보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자는 발견된/전제된 프

〈표 9〉 프레임 연구 유형론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류

Studies Examining Frames as...	Studies Examining Frames as...	
	발견된 프레임	전제된 프레임
메시지나 매체의 프레임	Greenhalgh & Russell(2009); Rogers & Peterson(2008); Shih, Wijaya & Brossard(2008); Souza(2007); Pratt, Ha & Pratt(2002); Roth, Dunsby & Bero(2003); Elliott(2007); Morgan, Chewning, Davis & Dicorcia(2007);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 이동근(2009); 정의철(2008a); 정의철(2008b); 박성희(2006); 이귀옥 · 박조원(2006); 박경숙(2002)	Hoffner & Ye(2009); Kwan(2009); O'Keefe & Jensen(2009, 2008); Parrot, Tennant, Olejnik & Poudevigne(2008); Cho & Boster(2008); Goodall & Appiah(2008); Shen & Dillard(2007); Siu(2007); Reinhart, Marshall, Freeley & Tutzauer(2007); Arora, Stone & Arora(2006); Schneider(2006); Rothman, Bartels, Wlaschin & Salovey(2006); Rothman et al.(2006); Harrison(2005); Jones, Sinclair, Rhodes Courneya(2004); Salovey, & Williams-Piehora(2004); Jones & Sinclair(2003) ;Armstrong, Schwartz, Fitzgerald & Ubel(2002); Assema, Martens, Ruiter & Brug(2001); 이세영 · 박현순(2009); 김수진 · 차희원(2009); 최현경 · 이명천 · 김정현(2008) 이종민 · 류춘렬 · 박상희(2007); 박성희(2006); 박유식 · 경종수(2002); 조형오(2000); 조형오 · 김병희(2000)
인지적 프레임	Kwan(2009); Luther & Zhou(2005); Roth, Dunsby & Bero(2003)	Boyle & Carbone-Lopez(2006)
맥락의 프레임	Tavorey & Swidler(2009); Rodney & Jones(2002)	Elliott(2007)

* Dunsby & Bero(2003)의 FDA 프레임과 시민들의 대항적 프레임은 매체가 전달하는 프레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이기도 하므로 두 영역에 동시에 배치되었음. Kwan(2009)도 마찬가지로 미국 질병관리본부 등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이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매체가 전달하는 프레임이기도 하므로 두 영역에 동시에 배치되었음. 마찬가지로 Elliott(2007)에서 비만자가 실패한 시민이라는 프레임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며 동시에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맥락으로 작용하므로 두 영역에 동시에 배치되었음.

레이프과 메시지/인지/맥락의 프레임을 교차시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분류체계는 6개의 유형론으로 <표 9>와 같았고, 본 메타 연구 대상인 45편의 국내·외 학술논문들 전체가 망라되어 이 분류체계에 의해 분류될 수 있었다. <표 1>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듯이 기존 Scheufele(1999)의 프레임 연구의 유형론이 전체 연구들을 망라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극복하는 분류체계를 구성한 것이었다.

(2) 프레임 효과론

앞에서 Hallahan(1999)과 이준웅(2000)의 분류체계에 토대를 두고 그것들을 통합하고 보완하여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임들과 프레임 연구들을 분류할 체계를 구성했을 때, 본 연구자는 이준웅(2000)의 분류체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방법을 몇 가지 이유에서 배제하였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접근방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 반대의 이유 때문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연구정향이 모든 유형의 프레임 혹은 프레임 연구들에서 채용될 수 있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 주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프레임 효과론은 여타 연구 유형들과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근본적 질문이란 각 유형의 연구자에게 실천적 함의를 촉구하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프레임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프레임 연구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감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위행동과 질병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정책에 미치는 프레임의 효과가 최소한 암묵적으로 전제되지 않고는 다양한 프레임 연구들의 실천적 함의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메타 분석적 과정을 거쳐 검토한 지난 10년간 출간된 45편의 국내·외 학술논문들은 공통적으로 프레임 혹은 프레임 연구를 주요 논제로 제시하지만, 프레임 효과에 대한 언급 방식은 서로 간 일치하

지만은 않았다. 45편의 연구들은 첫째, 프레이밍 효과를 명시적으로 계량화하여 언급한 경우, 둘째, 프레이밍 효과를 질적으로 기술한 경우, 셋째, 프레임 효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에서 프레임이 종속변인이므로 프레이밍 효과가 아니라 프레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 전체적으로 모두 4가지 연구 정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10>은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정향을 몇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김준홍, 2010 참조).

우선 프레이밍 효과를 계량화하여 양적 계산을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직접효과 모형, 조절효과 모형 그리고 매개효과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⁷⁾.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이든 매개변인이 개입하여 나타나는 효과이든 이득/손실 메시지 프레임의 총 효과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양 프레임 간의 효과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손실 프레임이 상대적 우위에 있다(Goodal & Appiah, 2008; Cho & Boster, 2008; 김수진·차희원, 2009; 이세영·박현순, 2009)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이득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Parrot et al., 2008; Reinhart et al., 2007; Jones & Sinclair, 2003; Armstrong et al., 2002 et al., 2008)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경우가 있었으며,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진다(Hoffner & Ye, 2009; Cho & Boster, 2008; Siu, 2007; Arora, Stone & Arora, 2006; 김수진·차희원, 2009; 최현경·이명천·김정현, 2008;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조형오·김병희, 2000)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득/손실 메시지 프레임에 따른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Shen & Dillard, 2007; Jones et al., 2004; Assema et al., 2001; 박유식·경중수, 2002)는 연구결과의 보고도 있었다.

이처럼 프레임 효과에 대한 양적 계산방식이 가지는 실증적 강점의

7) 이는 모형 간 상호배타적인 방식의 분류는 아니다

〈표 10〉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레임 연구에서 프레이밍 효과와 프레임에 미치는 효과

효 과	세부 효과	연 구
프레이밍 효과	직접 효과	Goodal & Appiah(2008); Parrot et al.(2008); Jones et al.(2004); Jones & Sinclair(2003); Armstrong et al.(2002); Assema et al.(2001); 이세영·박현순(2009); 박유식·경중수(2002)
	양적 계산	Hoffner & Ye(2009); Cho & Boster(2008); Arora, Stone & Arora(2006); Harrison(2005); Siu(2007); O'keefe & Jensen(2008, 2009); 김수진·차희원(2009); 최현경·이명천·김정현(2008); 이종민·류춘렬·박상희(2007); 조형오·김병희(2000)
	조절 효과	
	매개 효과	Shen & Dillard(2007); Reinhart et al.(2007); 조형오(2000)
	질적 설명	Rogers & Peterson(2008); Morgan et al.(2007); Schneider(2006); Rothman et al.(2006); Salovey & Williams-Piehora(2004); Roth, Dunsby & Bero(2003); 박성희(2006)
	암시적 설명	Tavorey & Swidler(2009); Kwan(2009); 정의철(2008b); Elliott(2007);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 Rodney & Jones(2002)
프레이밍에 미치는 효과	연급 없음	Shih, Wijaya, Brossard(2008); Greenhalgh & Russell(2009); Souza(2007); Luther & Zhou(2005); Pratt, Ha & Pratt(2002); 이동근(2009); 정의철(2008a); 이귀옥·박조원(2006); 박경숙(2002)
		Boyle & Carbone-Lopez(2006)

이면에는 다양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실험결과들을 통합해 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이 점에서 O'Keefe & Jensen(2008, 2009)의 양적 메타 분석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 이득/손실 메시지 프레이밍과 위협 커뮤니케이션 태도에 대한 메타연구에서 O'Keefe & Jensen(2008)은 건강위기행동의 영역이 검진행동/예방행동인가에 따라 메시지의 프레이밍 효과가 달라진다는 기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보다 세분화된 건강행동 분야에 따라서 그 효과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O'Keefe & Jensen(2008, 2009)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지 프레이밍의 설득적 효과가 세분화된 질병 및 건강 행동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메타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선행연구들이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질병 예방/검진 영역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아직 메타분석으로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예방/검진 분야에서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전망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프레이밍 효과론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물론 전망이론을 취했을 때 이득/손실 프레임 효과가 질병의 예방과 검진의 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가 O'Keefe & Jensen(2008, 2009)에 의해 일부 의문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했다(김준홍·윤영민, 2010).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설명의 방식은 <표 10>에서 보듯이 명시적 방식과 암시(암묵)적 방식이 있었다. 명시적 설명 방식의 경우에 프레이밍의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정책 확산(채택)/집행실패(Roth, Dunsby & Bero, 2003; Rogers & Peterson, 2008), 장기기증 실천 율(Morgan et al., 2007), 식품섭취량의 급격한 감소(박성희, 2006), 질병 및 건강행동(Schneider, 2006; Rothman et al., 2006; Salovey & Williams-Piehora, 2004)이었다. 이 같은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질적 명시적 설명 제시를 하는 연구들 중에는 해당 효과가 프레이밍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는 논증구조를 가진 경우(Morgan et al., 2007; Rothman et al., 2006; Roth, Dunsby & Bero, 2003)도 있었지만, 나머지 연구들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김성희(2006)는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기사/행위자/행위주체 간 프레임이 위험 증폭 등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프레이밍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자료(식품섭취량의 급감)를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설령 그 자료가 제시되었더라도 그 자료와 해당 시점과 기간 동안의 신문보도의 프레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튼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질적 명시적 설명 제시를 하는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주목하는 효과가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비교적 완결된 논증구조를 갖는 것이 요

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효과가 프레임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의 연구를 열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예컨대, Rogers & Peters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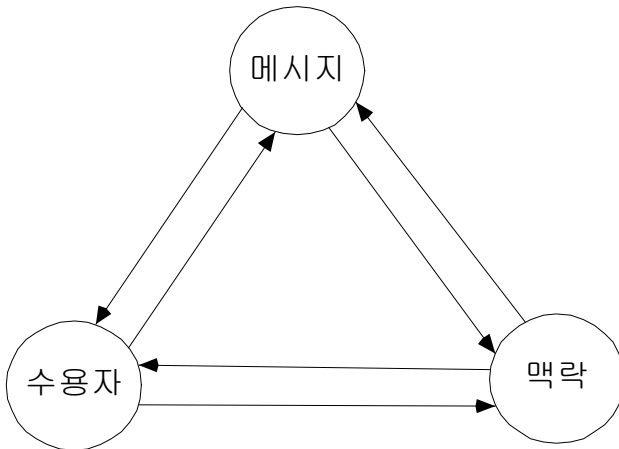
이러한 점들에서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질적 암시적 설명을 제공하는 연구들도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연구자의 취향과 사회철학 및 사회이론을 배경으로 한 글쓰기 방식에 따라서 명시적 설명 제시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비만한 몸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시민이라는 프레임(Elliott, 2007), 콘돔을 사용하는 사회적 의미에 기인하여 성행위자들을 규제하는 프레임(Tavorey & Swidler, 2009), AIDS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사회적 의미가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프레임(Rodney & Jones, 2002)은 모두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맥락 안에 내재하는 프레임들로서 그것들의 존재와 효과를 완결된 논리로써 입증하는 것보다는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로써 이해시키는 글쓰기가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정책(Kwan, 2009)과 기업의 평판(Dorfman, Lawrence & Woodruff, 2005)에 미치는 프레임의 은근하고 근본적 영향력을 드러내는 연구를 하거나 의료 권력에 대한 해석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매체 간 프레임 차이(정의철, 2008b)를 드러내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더 유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프레이밍의 효과에 대한 명시적 혹은 암시적 언급이 전혀 없는 연구들은 사정이 다르다. 물론 특정 연구자의 연구 취향과 특정 연구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연구 다양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술한 바대로 만약 프레임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프레임 연구의 가치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어떤 연구든 프레임의 효과가 최소한 암묵적으로 전제되지 않고는 그 연구의 실천적 함의가 퇴색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양적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는 메시지 프레임과는 달리 이러한 질적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이나 맥락의 프레임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점은 연구자들은

메시지 프레임 외에도 인지적 프레임과 맥락의 프레임 역시 프레이밍 효과를 가진다고 명시/암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이준웅, 2000)을 단지 메시지 효과론으로 축소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과 커뮤니케이션에 내재하는 맥락의 프레임까지도 효과론적 이해 속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다음에서는 메시지-수용자-맥락의 3자적 관계에서 프레이밍의 의미를 메타연구 대상논문들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

(3) 프레임의 거점(locus): 프레임은 어디에 있는가?

메타이론화의 과정에서 마지막 세 번째 논제는 프레임의 거점 혹은 소재지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프레임은 매체 혹은 메시지와 수용자의 인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맥락 안에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프레이밍은 단지 정태적이 아니며 <그림 2>에서 보듯이 메시지-수용자-맥락의 3자간 상호작용 속에서 역동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메시지-수용자-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의 프레이밍

〈표 11〉 국내·외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레임 연구들에서 프레임의 거점

프레임의 거점	연구
메시지(텍스트)	Goodal & Appiah(2008); Parrot et al.(2008); Shih, Wijaya, Brossard(2008); Souza(2007); Siu(2007); Schneider(2006); Rothman et al.(2006); Arora, Stone & Arora(2006); Harrison(2005); Salovey & Williams-Piehora(2004); Jones et al.(2004); Jones & Sinclair(2003); Pratt, Ha & Pratt(2002); Armstrong et al.(2002); Assema et al.(2001); 이동근(2009); 정의철(2008a); 이귀옥·박조원(2006); 박유식·경중수(2002); 박경숙(2002); 조형오·김병희(2000)
수용자(행위자)	Greenhalgh & Russell(2009); Boyle & Carbone-Lopez(2006);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
커뮤니케이션 맥락	Tavorey & Swidler(2009); Rodney & Jones(2002)
메시지-수용자	Rogers & Peterson(2008); Shen & Dillard(2007); Reinhart et al.(2007); Luther & Zhou(2005); Roth, Dunsby & Bero(2003); 김수진·차희원(2009); 이세영·박현순(2009); 조형오(2000)
메시지-맥락	Hoffner & Ye(2009); O'keefe & Jensen(2008, 2009); Cho & Boster(2008); Elliott(2007)
수용자-맥락	n. a.
메시지-수용자-맥락	Kwan(2009); Morgan et al.(2007); 최현경·이명천·김정현(2008); 정의철(2008b); 이종민·류준렬·박상희(2007); 박성희(2006)

* n. a.: Not Applicable

다음에서 본 메타연구의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45편의 연구논문들이 제시하는 프레임들이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프레임의 거점은 메시지(텍스트), 수용자(행위자), 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있는 경우와 그것들 간의 2자 혹은 3자 간 관계적 상호작용 속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본 메타연구를 위해 추출된 45편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프레임들의 거점을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었다.

〈표 11〉에서 분류된 양상을 볼 때,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과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를 제약하는 맥락의 상호작용만으로 프레임은 구성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론적인 견지에서 행위자-맥락 간 상호작용 속에서 프레임은 구성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표출되는 프레임을 연구자가 인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데이터가 개별 연구에서 연구자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텍스트가 된다. <표 11>의 메시지-수용자-맥락 연구들 중에서 Kwan (2009) 과 Morgan et al. (2007) 이 그러한 부류의 연구이다. 메시지-수용자-맥락 연구들 중에서 정의철 (2008b) 과 박성희 (2006) 는 텍스트분석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부류이다. 그러나 메시지-수용자-맥락 연구들 중에서 최현경·이명천·김정현 (2008) 과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는 그러한 두 부류와 완전히 다르다. 즉 이 연구들은 전망이론의 메시지 디자인에서 출발하였지만, 메시지가 강조하는 손실/이득 프레임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인들을 고려함에 있어 인지/해석적 요소가 개입된 개인적 관여도와 맥락적 요소가 관계하는 상황적 관여도 변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종민·류춘렬·박상희, 2007), 그리고 운전 여부에 따른 인지적/맥락적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최현경·이명천·김정현, 2008) 결국 메시지-수용자-맥락의 전체 차원을 포함시키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망이론적 배경의 메시지 디자인 이론은 많은 경우 프레이밍을 메시지 (텍스트) 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Goodal & Appiah, 2008; Parrot et al., 2008; Siu, 2007; Rothman et al., 2006; Arora, Stone & Arora, 2006; Salovey & Williams-Piehora, 2004; Jones et al., 2004; Jones & Sinclair, 2003; Armstrong et al., 2002; Assema et al., 2001; 박유식·경종수, 2002; 조형오·김병희, 2000). 물론 이 연구들 직전에 언급한 연구들이 조절변인을 고려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메시지-수용자-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프레이밍을 고찰하게 된 것이었지,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론적 지평을 넓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록 이 연구자들이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메시지 텍스트에만 국한시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를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수용자의 인지적, 해석적 프레임 차이와 메시지가 지향하는 목적 및 메시지가 제공되는 상황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론적 배경을 가진 연구들이 메시지-수용자-맥락의 상호작용 전반에까지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메시지-수용자의 상호작용(Shen & Dillard, 2007; Reinhart et al., 2007; 김수진·차희원, 2009; 이세영·박현순, 2009; 조형오, 2000)이나 메시지-맥락의 상호작용(Hoffner & Ye, 2009; O'keefe & Jensen, 2008, 2009; Cho & Boster, 2008) 에까지만 변인 범위를 확장한 것들도 있었다. 이러한 변인 범위 혹은 프레임의 거점의 확장은 전술한대로 O'Keefe & Jensen(2008, 2009) 이후 전망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프레임링 효과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전술한 대로 Kwan(2009)과 Morgan et al.(2007)은 연구자가 인식한 프레임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로서 텍스트에 접근하게 되었고, 정의철(2008b)과 박성희(2006)는 아예 텍스트분석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연구정향을 가지지만 이 네 가지 연구들이 모두 질적 연구로서 메시지-수용자-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프레임을 인식한 점에서 같았다.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한 연구들 중에서 일부 텍스트분석을 한 것들(Shih, Wijaya, Brossard, 2008; Souza, 2007; Pratt, Ha & Pratt, 2002; 이동근, 2009; 박경숙, 2002)은 프레임의 거점을 주로 텍스트에서 파악하는 데 머무르고 있었고 메시지-수용자-맥락의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기술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의철(2008a)의 경우 HIV/AIDS 관련 프레임의 거점을 뉴스 텍스트에서 발견하였으나 심층인터뷰를 가미함으로써 프레임의 소재가 텍스트 밖에도 있음을 시사했다.

질적 연구방법론 전통을 이어받은 연구들 중에서 텍스트의 프레임과 행위자의 인지/해석적 프레임 간의 역동성을 보여준 연구들이 있었다. 지역신문의 프레임링과 보건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프레임링 간의 역동성(Rogers & Peterson, 2008), 중국 저널리스트 및 독자들의 서구적 가치 프레임과 SARS 관련 기사 간의 관계(Luther & Zhou, 2005), 담배광고 규제정책을 둘러싼 FDA와 시민들의 프레임 경쟁과 정책의 실

행 여부 간의 역동적 관계(Roth, Dunsby & Bero, 2003)는 그 사례들이다. 질적 연구방법론 전통을 이어받은 연구들 중에서 텍스트의 프레임과 맥락의 프레임 간의 역동성을 보여준 연구는 캐나다 비만 정책 관련 각종 문헌과 그 문헌에서 발견되는 프레임 양식이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상황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보여준 Elliott (2007)가 있었다.

그 외에도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는 연구들 중에서 단지 행위자의 인지적 프레임 기술에만 주력하거나 단지 커뮤니케이션 맥락에만 주력하는 연구들도 발견되었다. 행위자 혹은 조직의 인지적 프레임은 이슈(사회운동론)의 프레임 영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각 연구에서 근거기반의 정책 형성을 둘러싼 찬반논쟁과 관계된 프레임(Greenhalgh & Russell, 2009), 시장의 정의와 사회정의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framing battle)의 강조(Dorfman, Lawrence & Woodruff, 2005) 및 FGC(female genital cutting)을 둘러싼 프레임의 경쟁(Boyle & Carbone-Lopez, 2006)이 논의되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을 규제하는 맥락을 프레임으로 규정한 질적 연구들은 콘돔과 성행위(Tavorey & Swidler, 2009), AIDS 관련 홍보(Rodney & Jones, 2002)에 있어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의미와 권력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이밍 관련 문헌에 대한 본 메타연구의 목적은 관련 분야의 국내·외 주요 학술 논문 전반을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이밍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제한점을 기술하면서 미래 연구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개별 학술논문들로서 본 연구자는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 관련 연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최근 10년간 선행연구들 45편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에 기초하여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논구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프레임링 관련 연구들의 이론과 연구방법,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자료를 구성하고, 그 자료들을 토대로 메타 데이터 분석, 메타방법, 메타이론의 분석적 과정을 거쳐 메타연구의 종합(meta-synthesis)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연구의 산출물로서 기존 문헌의 분류를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프레임의 효과론과 프레임의 거점 논의에서 기존 연구들을 새롭게 분류하며 비평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연구 지형의 이론적 편중 현상을 발견하였고, 이는 학문 분과의 편중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방법론으로도 마찬가지였다. 해외 논문과 국내 논문들의 연구방법론 유형 빈도를 비교해 볼 때, 해외 논문들은 양적, 질적 각 연구방법론 안에서 세부적인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데 반하여, 국내 연구논문들은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실험설계와 실험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에,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주로 질적 프레임 분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 연구논문들이 방법론적, 이론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전반적으로 국내 헬스 커뮤니케이션 논의 역사의 일천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발전과정에서 서구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해와 통찰 및 적용의 깊이에 다가설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자는 메타이론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분류체계의 개선, 프레임링 효과의 검증과 이론화, 그리고 프레임이 있는 거점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향후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링 연구가 지향해야 할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임 연구자들에게 실천적 함의를 추구하는 물음을 던졌다. 사람들의 건강위기행동과 질병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의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정책에 미치는 프레임

의 효과가 최소한 암묵적으로 전제되지 않고는 다양한 프레임 연구들의 실천적 함의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했다. 이러한 실천적 함의를 추구하는 것은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근거중심의 실행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는 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메타 분석적 과정을 거쳐 검토한 지난 10년간 출간된 45편의 국내·외 학술논문들은 공통적으로 프레임 혹은 프레이밍을 주요 논제로 제시하였지만,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언급 방식은 서로 간 일치하지만은 않았다. 프레임 효과에 대한 양적 계산방식이 가지는 실증적 강점의 이면에는 다양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실험결과들을 통합해 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점에서 O'Keefe & Jensen (2008, 2009)의 양적 메타분석 연구 이후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직 메시지 프레이밍의 설득적 효과가 세분화된 질병 및 건강 행동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는 일이 전망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프레이밍 효과론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제언하였다. 이 주제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접근방법은 메타분석과 더불어 건강 캠페인 분야에서 적실성 있고 구체적인 건강행동 분석 및 질병의 영역에 특유한 분석(behavior-specific or disease domain-specific analysis)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여 일반화하는 전략이다. 다른 하나의 접근 방법은 다양한 건강 행동 및 질병 영역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는 보편적 분류 기준을 세우는 전략이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 프레임 분석 연구들 중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논문들은 질적 프레임 분석 외에도 근거이론, 비교분석, 시계열 분석, 역사적 분석, 담론분석, 규범적 방법 및 심층인터뷰 등을 가미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로써 질적 연구방법을 채용하더라도 프레이밍 효과를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논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질적 명시적 설명 제시를 하는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주목하는 사회문제나 현상이 프레이밍에 의한 효과라는 것을 납득

시킬 수 있는 비교적 완결된 논증구조를 갖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효과가 프레임이 아닌 다른 원인들에 의해 초래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의 연구를 열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메타연구의 분석적 과정을 거친 문헌의 비평적 검토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보다 창의적인 지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각 프레임 소재지 간의 상호관계와 역동성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영역에서 프레임과 프레임 유형들(framing typologies)을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과제이기도 하다. 기존 유형 및 분류체계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프레임은 무엇이 있겠으며 그 새로운 프레임을 분류해 낼 수 있는 분류체계는 무엇이겠는지 그 물음에 향후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에서 프레이밍 관련 학술연구들의 메타연구를 수행하면서도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비교될 수 있는 여타 분야의 프레이밍 연구정향들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여타 분야에서 프레이밍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다양한 프레임들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여타 분야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프레임 유형들도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프레임 모델(이론)과 주제 분야가 만나는 지점에서 아직 해당 연구가 소수에 그치거나 발견되지 않은 영역들도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직 미개척적인 이 분야들을 채울 수 있는 지적 노력 역시 향후 필요한 부분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개입은 목표 집단이 가진 태도, 신념, 가치 등의 변화를 도모하며, 여기에는 설득 커뮤니케이션과 강제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이 태도를 채택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본 연구에서 다른 헬스 커뮤니

니케이션은 바로 여기에 치중하였다. 정책이나 법제적 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강제적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에 별도로 중대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나,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요청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수진·차희원(2009). 공중유행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건강위험 커뮤니케이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231~253.
- 김원용·이동훈(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준홍(2010).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 및 정책이슈. 『디지털미디어트렌드』, 49, 23~41.
- 김준홍·윤영민(2010).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설득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IDS 질병영역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4권 1호, 83~123.
- 김훈순(2004). 텔레비전 서사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 겨울호, 167~197.
- 류준호·윤승금·이영주(2010).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언론과학연구』, 10권 1호, 124~165.
- 박경숙(2002). 집단 갈등 이슈의 방송 뉴스 프레임 분석: 의약분업 뉴스 프레임 중심. 『한국언론학보』, 42권 2호, 310~340.
- 박성철·최진명·오상화(2008). 한국과 미국의 최근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 경향에 관한 기술적 분석.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40~69.
- 박성희(2006). 위협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5호, 181~210.
- 박유식·경중수(2002). 광고유행과 오디언스 특성이 공익광고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13권 5호, 177~200.
- 이귀옥·박조원(2006). 식품위해(food risk) 보도의 뉴스 프레임 분석: 김치 파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5호, 26~305.
- 이동근(2009). <오마이뉴스>와 전현직 기자 블로그의 저널리즘적 특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기사의 프레임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7권 2호, 5~29.
- 이세영·박현순(2009). PR메시지 유형, 증거점 설정, 지각된 위험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70~95.
- 이종민·류춘렬·박상희(2007).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282~307.
- 이준용(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가을통권 29호, 85~153.
- 정의철(2008a). 에이즈 뉴스 프레임 분석: 비판적 헬스저널리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223~248.
- 정의철(2008b). 아프리카의 에이즈와 제약특허 문제에 관한 뉴스프레임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9호, 134~166.
- 조형오(2000). 금연광고 메시지 유형의 효과분석: 메시지 프레임과 메시지 소구방향의 매개역할. 『광고학연구』, 11권 1호, 133~157.
- 조형오·김병희(2000). 비만예방 광고의 메시지 유형별 설득효과 차이 분석. 『광고학연구』, 11권 4호, 165~185.
- 최현경·이명천·김정현(2008). 메시지 프레임과 지향성이 공익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0권 2호, 34~65.
- 한미정(2005). 건강관련 커뮤니케이션 연구논문 내용분석: 1990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7권 5호, 210~230.
- 황상재·박석철(2004). 국내 인터넷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권 2호, 68~92.
- Arora, R., Stoner, C., & Arora, A. (2006). Using Framing and Credibility to Incorporate Exercise and Fitness in Individuals' Lifestyle.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3(4), 199~207.
- Armstrong, K., Schwarz, J. S., Fitzgerald, G., Putt, M., & Ubel, P. A. (2002). Effect of Framing as Gain versus Loss on Understanding and Hypothetical Treatment Choices: Survival and Mortality Curves. *Medical Decision Making, JAN-FEB*, 76~83.
- Assema, P., Martens, M., Ruiter, R. A. C., & Brug, J. (2001). Framing of Nutrition Education Messages in Persuading Consumers of the Advantages of A Healthy Diet. *Journal of Human Nutrition Dietet*, 14, 435~442.
- Brown & Walsh-Childs(2002). Effects of Media on Personal and Public Health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nd ed. (Chapter 17)*. Hillsdale,

-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53~488.
- Boyle, E. H., & Carbone-Lopez, K. (2006). Movement Frames and African Women's Explanations for Opposing Female Genital Cu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7, 435~465.
- Cho, H., & Boster, F. J. (2008). Effects of Gain Versus Loss Frame Antidrug Ads o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58, 428~446.
- Cho, H., & Salmon, C. T. (2007). Unintended Effects of Health Communication Campaigns. *Journal of Communication*, 57, 293~317.
- Colomy, P. (1992). Review: Metatheorizing: A Preliminary and Promising Program. *Sociological Perspectives*, 35 (3), 537~541.
- Dorfman, L., Wallack, L., & Woodruff, K. (2005). More Than a Message: Framing Public Health Advocacy to Change Corporate Practices.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32 (3), 320~336.
- Elliott, C. D. (2007). Big Persons, Small Voices: On Governance, Obesity, and the Narrative of the Failed Citizen. *Journal of Canadian Studies*, 41 (3), 134~149.
- Farrell, C., & Morris, J. (2009). Still Searching for the Evidence?: Evidence-based Policy, Performance Pay and Teachers.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1 (1), 75~94.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Goodall C., & Appiah O. (2008). Adolescents' Perceptions of Canadian Cigarette Package Warning Label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Message Framing. *Health Communication*, 23, 117~127.
- Greenhalgh, T., & Russell, J. (2009). Evidence-based Policy Making: A Critique. *Pro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52 (2), 304~318.
- Hallahan, K. (1999). Seven Models of Framing: Implications for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1 (3). 205~242.
- Harrison, K. (2005). Is "Fat Free" Good for Me? A Panel Study of Television Viewing and Children's Nutritional Knowledge and Reasoning. *Health Communication*, 17(2), 117~132.

- Hewison, A. (2008). Evidence-Based Policy: Implications for Nursing and Policy Involvement. *Policy, Politics & Nursing Practice*, 9(4), 287~298.
- Hoffner, C., & Ye, J. (2009). Young Adults' Responses to News About Sunscreen and Skin Cancer: The Role of Framing and Social Comparison. *Health Communication*, 24, 189~198.
- Jones, R. H. (2002). A Walk in the Park: Frames and Positions in AIDS Prevention Outreach among Gay Men in China. *Journal of Sociolinguistics*, 6(4), 575~588.
- Jones, L. W., Sinclair, R. C., & Courneya, K. S. (2003). The Effect of Source Credibility and Message Framing on Exercise Intentions, Behaviors, and Attitudes: An Integration of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and Prospect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1), 179~196.
- Jones, L. W., Sinclair, R. C., Rhodes, R. E., & Courneya, K. S. (2004). Promoting Exercise Behavior: An Integration of Persuasion Theorie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505~521.
- Kahnemann A., & Tversky D.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wan, S. (2009). Framing the Fat Body: Contested Meaning between Government, Activists, and Industry. *Sociological Inquiry*, 79(1), 25~50.
- Luther, C. A., & Zhou, X. (2005). Within the Boundaries of Politics: News Framing of SAR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2(4), 857~872.
- Morgan, S. E., Harrison, T. R., Chewning, L., Davis, L., & DiCorcia, M. (2007). Entertainment (Mis) Education: The Framing of Organ Donation in Entertainment Television. *Health Communication*, 22(2), 143~151.
- Niederdeppe, J., Farrelly, M. C., Thomas, K. Y., Wenter, D., & Weitzenkamp, D. (2007). Newspaper Coverage as Indirect Effects of a Health Communication Intervention: The Florida Tobacco

- Control Program. *Communication Research*, 34(4), 382~406.
- Niessen, L. W., Grijseels, E. W., & Rutten, F. F. H. (2000). The Evidence-based Approach in Health Policy and Health Care Deliver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1, 859~869.
- O'Keefe, D. J., & Jensen, J. D. (2008). Do Loss-framed Persuasive Messages Engender Greater Message Processing Than Do Gain-framed Messages? A Meta-analytic Review. *Communication Studies*, 59(1), 51~67.
- _____. (2009). The Relative Persuasiveness of Gain-Framed and Loss-Framed Message for Encouraging Disease Detection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mmunication*, 59, 296~316.
- Parrot, M. W., Tennant, L. K, Olejnik, S., & Poudervigne, M. S. (2008). Theory of Planned Behavior: Implications for an Email-based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511~526.
- Paterson, B., Canam, C., Joachim, G., & Thorne, S. (2003). Embedded Assumptions in Qualitative Studies of Fatigu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5(2), 119~133.
- Pratt, C. B., Ha, L., & Pratt, C. A. (2002). Setting the Public Health Agenda on Major Diseases in Sub-Saharan Africa: African Popular Magazines and Medical Journals, 1981~1997. *Journal of Communication*, December, 889~904.
- Reinhart, A. M., Marshall, H. M., Freely, T. H., & Tutzauer, F. (2007). The Persuasive Effects of Message Framing in Organ Donation: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Reactance. *Communication Monographs*, 74(2), 229~255.
- Ritzer, G. (1988). Sociological Metatheory: A Defense of Subfield by A Delineation of Its Parameters. *Sociological Theory*, 6, 187~200.
- _____. (1990). Metatheorizing in Sociology. *Sociological Forum*, 5(1), 3~15.
- _____. (1991). Reflections on the Rise of Metatheorizing in Soci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34(3), 237~248.

- _____ (1992). The Legitim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etatheorizing in Soci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35 (3), 543~550.
- Rogers E. M., & Peterson J. C. (2008). Diffusion of Clean Indoor Air Ordinances in the Southwestern United States. *Health Education and Behavior*, 35 (5), 683~697.
- Roth, A. L., Dunsby J., & Bero, L. A. (2003). Framing Processes in Public Commentary on US Federal Tobacco Control Regul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33 (1), 7~44.
- Rothman, A. J., Bartels, R. D., Wlaschin, J., & Salovey, P. (2006). The Strategic Use of Gain- and Loss-Framed Messages to Promote Healthy Behavior: How Theory Can Inform Practice. *Journal of Communication*, 56, 202~220.
- Rothman, A. J., Martino, S. C., Bedell B. T., Detweiler, B., & Salovey, P. (1999). The Systematic Influence of Gain and Loss Framed Messages on Interest in and Use of Different Types of Health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355~1369.
- Rothman A. J., & Salovey, P. (1997). Shaping Perceptions to Motivate Healthy Behavior: The Role of Message Fram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 (1), 3~19.
- Rothman A. J., Salovey, P., Antone, C., Keough, K., & Martin, C. D. (1993). The Influence of Message Framing on Intentions to Perform Health Behavio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9, 408~433.
- Salovey, P., & Williams-Piehora, P. (2004). Field Experiment in Social Psychology: Message Framing and the Promotion of Health Protective Behavior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7(5), 488~505.
- Sanderson, I. (2002). Making Sense of 'What Works':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as Institutional Rationality?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17(3), 60~75.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 (1). 103~122.

- Schneider, T. R. (2006). Getting the Biggest Bang for Your Health Education Buck.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9(6), 812~822.
- Shen, L., & Dillard J. P. (2007). The Influence of Behavioral Inhibition/Approach Systems and Message Framing on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Health Messages. *Communication Research*, 34(4), 433~467.
- Shih, T., Wijava, R., & Brossard, D. (2008). Media Coverage of Public Health Epidemics: Linking Framing and Issue Attention Cycl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Print News Coverage of Epidemic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1, 141~160.
- Siu (2007). Prime, Frame, and Source Factors: Semantic Valence in Message Judge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10), 2364~2375.
- Souza, R. (2007). The Construction of HIV/AIDS in Indian Newspapers: A Frame Analysis. *Health Communication*, 21, 257~266.
- Tavory, I., & Swidler, A. (2009). Condom Semiotics: Meaning and Condom Use in Rural Malawi.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 171~189.
- Tversky D., & Kahnemann A. (1981). The Framing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Wallace, W. L (1992).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G. Ritzutu (Ed.), *Metatheorizing* (pp. 53~68). Sage Publication.
- Zhao, S. (1991). Meta-theory, Meta-method, Meta-data-analysis: What, Why, And How?. *Sociological Perspectives*, 34, 377~370.

투고일자	2010년 3월 30일
심사일자	2010년 4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5월 31일

abstract

**A Meta-Study on Framing Researches
in Health Communication**

Kim Jun Hong

Research Director

Korea Mental Hospital Association

Kim Yoo Seok

Senior Researcher

Media & Future Institute

Kim Seung Hyun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 meta-study on framing researches in health communication, is to review previous framing related researches critically, and to classify them systematically after extracting them from relevant databases. We extracted most recent forty five academic papers from various academic traditions on framing researches, and grouped them with reference to D. A. Scheufele, J. W. Lee, and K. Hallahan. On the basis of analytical procedure of meta-study, we performed meta-data analysis, meta-method, and meta-theorizing respectively. Toward meta-synthesis we tried to advance typologies, and to reach in-depth understanding of framing effect and discussions of framing locus.

Keyword: health communication, frame, framing, meta-study, meta data analysis, meta-method, meta-theory

〈부록 1〉 개별 연구 목록(해외연구)

연구	Hofner & Ye (2009)	Greenhalgh & Russell(2009)	Goodall & Appiah(2008)	Shih, Wijaya & Brossard(2008)	Rogers & Peterson(2008)	Souza(2007)
학술지	Health Communication	Perspectives of Biology and Medicine	Health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Health Education &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저자의 직업적 배경	커뮤니케이션학과 와 의과대학 교수들	일차보건 및 인구보건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들	저널리즘과 매스컴학과 교수들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학과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들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주요 이론	전망이론, 사회적 비교이론	해석이론, 비판이론	전망이론	텍스트분석론, 이슈주목주기 (issue attention cycle)이론	개혁 확산이론 (innovation diffusion theory)	텍스트분석론
연구 방법	실험설계, 분산분석	근거기반의 정책형성 (evidence-based policy-making) 프레임에 대한 비평적 질적 분석	실험설계, 분산분석	내용분석, 이슈주목주기의 비교 분석	인터뷰	내용분석, 근거 이론적 프레임분석
표본 및 데이터	191명의 젊은 남녀 18~29세	없음	210명의 고등학생 15~19세	초기발병에서 2005년 말까지 전염병 mad cow disease(n=311), West Nilevirus (n=251), avian flu(n=126)에 대한 New York Times의 뉴스기사	뉴멕시코와 텍사스주에 소재한 10개 커뮤니티의 청정실내공기규정 (clean indoor air ordinances) 채택 관련 자료	인도 일간지 Times of India와 The Hindu의 HIV/AIDS 관련 뉴스기사(n=205)
독립 변인	뉴스기사의 이득/손실의 메시지 프레임	없음	흡연에 대한 이득/손실의 메시지 프레임	New York Times의 프레임 (독립/종속변인 구분 없음)	정책추천자의 개인적 경험, 지역신문의 프레임, 기존에 금연 정책을 채택한 커뮤니티와의 연계성	Times of India와 The Hindu의 프레임 (독립/종속변인 구분 없음)
종속변인	햇빛타기방지제 사용의도	없음	태도, 지각, 행동의도	없음	청정실내공기규정(공공장소에서 금연정책) 채택 여부	없음
조절변인	성별, 뉴스기사에 포함된 본받고자 하는 인물의 건강상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개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레임 효과	이득/손실 프레임 효과 차이가 발견되며 구체적으로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짐	언급 없음	손실프레임 효과의 상대적 우위	언급 없음	지역신문의 프레임 효과가 금연 정책의 확산(채택)에 영향을 줌	언급 없음
발견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근거기반의 정책 형성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결과, 행동, 불확실성, 확증, 갈등, 새로운 증거 프레임	보건, 경제, 개인의 권리, 중립적 프레임	HIV/AIDS의 심각성, 원인과 해법, 취약계층 프레임

연구	Elliott(2007)	Shen & Dillard (2007)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	Harrison(2005)	Roth, Dunsby & Bero(2003)	Pratt, Ha & Pratt (2002)
학술지	Journal of Canadian Studies	Communication Research	Health Education &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저자의 직업적 배경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대학 교수들	보건연구소 미디어연구 그룹 연구자들과 공공정책학과 교수	스피치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국 농림부의 커뮤니케이션 부서 공무원, 텔레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미국 국립보건원 과학자
주요 이론	텍스트분석론	전망이론, 정서심리학 이론 등	Daniel Beauchamp의 공중보건의 사회정의(윤리)론	없음	없음	의제설정이론과 프레임 이론
연구 방법	각종 문헌분석을 통한 비평적 질적 분석, 역사적 담론분석	반복측정실험설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기업규범의 제시	6주 간격의 패널조사, 요인분석 및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내용분석, 역사적 분석	내용분석, 언론규범의 제시
표본 및 데이터	캐나다 비만정책 관련 각종 문헌	연구 1: 남녀 대학생 286명 연구 2: 남녀 대학생 252명	없음	123명의 1~3학년 남녀 아동	미국정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공식자료와 시민들의 공식적 의견제시(public commentary)자료 약 500여명의 표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5대 질병인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종양, 나병에 대한 기사 및 학술연구; New African, Z-Magazine, East African Medical Journal, The Central African Journal of Medicine의 1981년 ~ 1997년 자료
독립 변인	비대한 몸을 가진 사람은 열등한 시민이라는 프레임, 비만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키고 개인의 문제로 귀인 하는 프레임 (독립/종속변인 구분 없음)	연구 1: 피부건강, 비만, 플루 관련 이득/손실의 메시지 프레임 연구 2: 금연, 녹내장, 보행자 안전 관련 이득/손실의 메시지 프레임	없음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프레임 (체중감량과 건강함을 혼동시키는 프레임 다이어트 식품이 영양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프레임)	FDA의 프레임(차별적, 진단적, 과학지상의 프레임)과 일반 시민들의 대항적 프레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의 세력관계	사회적 낙인의 질병으로서 AIDS 프레임 (독립/종속변인 구분 없음)
종속 변인	없음	행동 의도	없음	영양에 대한 지식과 사고	FDA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광고금지 정책의 집행 실패	없음
조절 변인	없음	없음, 다만 이득/손실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	없음	식품의 종류 (다이어트 식품과 비-다이어트 식품)	없음	없음

연구	Elliott(2007)	Shen & Dillard (2007)	Dorfman, Lawrence & Woodruff(2005)	Harrison(2005)	Roth, Dunsby & Bero(2003)	Pratt, Ha & Pratt (2002)
매개 변인	없음	BAS/BIS의 신경체계, 정서, 인지, 태도	없음	없음	미연방대법원판결	없음
프레임 효과	비만한 몸을 가진 캐나다 사람이 실패한 시민 (failed citizen)을 전염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	프레임 효과보다는 프레임 효과가 발생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에 관심. 수치상으로 손실/이득 프레임 효과 차이가 없음	개인선택 프레임과 집단적 책임 프레임 간의 균형이 기업 입장에서 미디어와 공중에 대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효과를 줌	TV에서 집중 광고되는 프레임	대항적 프레임의 효과	언급 없음
발견된 프레임	비만자는 실패한 시민이라는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선행연구에서 시장정의와 사회정의의 프레임 발견	없음 (전제된 프레임)	FDA의프레임 (처방적, 진단적, 과학지상의 프레임) 대항적 프레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프레임)	사회적 낙인의 질병인 에이즈인 경우 그렇지 않은 말라리아, 결핵보다 프레임이 두드러짐

연구	O'Keefe & Jensen (2009)	O'Keefe & Jensen (2008)	Cho & Boster (2008)	Morgan, Chewning, Davis & Dicorcia(2007)	Reinhart, Marshall, Freeley & Tutzauer(2007)	Siu(2007)
학술지	Journal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tudies	Journal of Communication	Healt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저자의 직업적 배경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교신저자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주요 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텍스트분석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연구 방법	메타분석	메타분석	실험설계, t-test와 공변량분석	질적 프레임 분석	실험설계, 공변량분석	실험설계, 공변량분석
표본 및 데이터	53개의 선행연구들에서 9,145명의 피험자	42개의 선행연구에서 6,378명의 피험자	246명의 농촌 거주 남녀 학생들: 10세 ~15세	ABC, NBC, CBS, Fox에서 방영된 엔터테인먼트 쇼 중에서 장기기증의 스토리라인	연구1: 남녀 189명 (평균연령 20.3세) 연구2: 남녀 318명 (평균연령 20세) 연구3: 남녀 433명 (평균연령 약 20세)	남녀 대학생 406명
독립 변인	건강검진행동영역에서 손실/이득 프레임	손실/이득 프레임	손실/이득 프레임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 쇼 의 프레임(부정적 프레임: 메타, 이차적, 삼차적 프레임)	손실/이득 프레임	손실/이득 프레임
종속 변인	실득적 효과 (태도, 동의, 행동의도, 행동 등)	메시지 관여 (message engagement)	태도와 행동의도	장기기증 실천율의 저하	장기 및 조직기증에 대한 메시지 반응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의미론적 평가, 정서적 평가
조절 변인	5가지 구체적 검진분야 (유방암 검진, 피부암 검진, 기타 암 검진, 치아질환 검사, 기타 가벼운 검사), 메시지에서 핵심 상태의 표현 (kernel state phrasing)	메시지에서 핵심 상태의 표현, 메시지 옹호의 3가지 주제 분야 (질병예방, 기타 분야)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인지된 규범 (perceived norm) 수준	없음	없음	신체활동 증진에 대한 의미론적 평가, 정서적 평가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작적 의도의 지각(perceived manipulative intent), 심리적 반발(psychological reactance)	없음
프레임 효과	유방암 검진에서만 손실 프레임 효과성이 우위, 나머지 영역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통계적으로 이득 프레임 메시지의 상대적 우위가 발견되나 그 크기는 경미함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짐	미디어가 장기기증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장기기증 실천율 저하를 가져온다고 가정됨	메시지 프레임의 직접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를 발견. 이득 프레임의 실득적 효과가 상대적 우위	메시지정보원의 건강상태라는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짐
발견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부정적 프레임: 메타, 이차적, 삼차적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연구	Schneider(2006)	Rothman, Bartels, Wlaschin & Salovey (2006)	Salovey & Williams-Piehora (2004)	Armstrong, Schwartz, Filtzerald & Ubel(2002)	Boyle & Carbone-Lopez (2006)
학술지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Journal of Communic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Medical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저자의 직업적 배경	논문에 전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심리학과 교수들	심리학과 교수들	의학박사들	사회학과 교수들
주요 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연구 방법	문헌검토, 규범의 제시	문헌검토	문헌검토	실험설계, 카이자승검정 및 다변량분석	서베이, 회귀분석
표본 및 데이터	없음	없음	없음	필라델피아 법원의 배심원 대기자 451명	13,195명의 아프리카 5개국 여성들 서베이를 통해 FGC(female genital cutting) 반대 이유의 프레임 추출
독립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사망곡선 (손실 프레임)이나 생존곡선 (이득 프레임)의 제시	서구문화 접촉 정도, 자립성, 연령, FGC 여부, 지역의 발전정도, FGC에 대한 지역의 문화적 지지 정도, 국적
종속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이해와 선택	의료적 권리, 여성인권, 나쁜 관습 프레임
조절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레임 효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한 메시지전락을 규범적으로 제시	이득 프레임은 예방적 행동에서 보다 효과적일 반면, 손실 프레임은 검진행동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실험설계를 도입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손실/이득프레임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을 논구	사망곡선 (손실 프레임)의 제시가 생존곡선 (이득 프레임)의 제시에 비해 이해와 관심의 면에서 낮은 효과	연구 없음 (프레임이 종속변인이므로)
발견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의료적 권리, 여성인권, 나쁜 관습 프레임을 전제하고 연구)

연구	Tavory & Swidler (2009)	Rodney & Jones (2002)	Luther & Zhou (2005)	Kwan(2009)	Assema, Martens, Ruiter & Brug(2001)
학술지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Journal of Sociolinguistic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Sociological Inquiry	Journal of Human Nutrition Dietet
저자의 직업적 배경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과 교수	저널리즘과 전자매체학과 교수와 박사수로생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학과, 보건과학과 및 실험심리학과 교수
주요 이론	기호학(semiotics)	텍스트분석론	텍스트분석론	텍스트분석론	전망이론
연구 방법	인터뷰	담론분석	질적 프레임 분석, 매체 간 프레임 비교분석	프레이밍 매트릭스 분석	실험설계, 카이자승검정 및 분산분석
표본 및 데이터	말라위 농촌 성인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600편 이상의 인터뷰 자료 및 일기	인터뷰 녹취자료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피플즈 데일리, 차이나 데일리의 SARS 관련 기사: 2003년 2월 1일 ~ 6월 30일	미국 질병관리본부, 생산자 단체, 소비자자유센터의 문서 등 비만 관련 공식적 자료	152명의 성인남녀 (평균 나이 52세)
독립 변인	없음	없음	중국신문의 서구화	의료적, 사회정의, 시장선택의 프레임	식습관에 관련된 손실/이득 프레임
종속 변인	없음	없음	경제적 결과, 책임, 갈등, 리더십, 인간적 관심 프레임 측면에서 영국 신문이 차이가 없음	사회적 형평, 비만에 대한 인식, 공공정책	인지적, 정서적 태도와 행동의도
조절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레임 효과	프레임은 맥락으로 작용하여 성행위자들을 규제	매략적 프레임이 행위자들을 규제	언급 없음	의료적, 사회정의, 시장선택의 프레임이 사회적 형평, 비만에 대한 인식, 공공정책 등에 영향	손실/이득 프레임의 효과 차이가 없었음
발견된 프레임	곤돌을 사용하는 의미에 대한 프레임	AIDS 예방을 위한 팸플릿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지니는 매략적 프레임	경제적 결과, 책임, 갈등, 리더십, 인간적 관심 프레임	의료적, 사회정의, 시장선택의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연구	Jones, Sinclair, Rhodes & Courneya(2004)	Arora, Stone, & Arora (2006)	Parrot, Tennant, Olejnik & Poudevigne(2008)	Jones & Sinclair(2003)
학술지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Psychology of Sport & Exercis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저자의 직업적 배경	체육학과, 심리학과, 체육교육학과 교수	교수들 전공은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교수들 전공은 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체육학과 교수들, 여론조사기관 연구원
주요 이론	전망이론, 계획행동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정교화가능성이론
연구 방법	실험설계, 분산분석	실험설계, 분산분석	실험설계, 공분산분석	반복측정실험설계(온라인 서베이), 분산분석
표본 및 데이터 독립 변인	450명의 캐나다 앨버타대학에서 기초심리학을 수강하는 남녀학생 손실/이득 프레임, 정보원 신뢰도	136명의 미국의 미드웨스턴 도시 거주민들 남녀 손실/이득 프레임, 정보원 신뢰도	565명의 운동을 하지 않는(sedentary) 남녀 대학생 손실/이득 프레임	192명의 캐나다의 앨버타 남녀 대학생들 (평균연령 19.81세) 손실/이득 프레임, 정보원의 신뢰도
종속 변인	인지적 반응, 태도변화, 운동행동 등	운동에 대한 태도, 행동의도	운동의도	운동의도, 규칙적 운동행동, 인지적 반응 등
조절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레임 효과	운동 행동의 실득적 효과에서 손실 프레임보다 이득 프레임이 우위에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음	프레임의 주효과, 정보원 신뢰도의 주효과, 프레임×신뢰도의 상호작용효과	이득프레임 메시지의 상대적 우위	이득 프레임의 메시지가 손실 프레임의 메시지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동기 부여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발견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부록 2> 개별 연구 목록(국내 연구)

연구	이세영·박현순(2009)	김수진·차희원(2009)	이동근(2009)	최현경·이명천·김정현(2008)	이귀옥·박조원(2006)
학술지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방송학보
저자의 직업적 배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소속연구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언론홍보영상학과 박사과정, 조교수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고홍보학과 박사수료생, 교수, 조교수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 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텍스트분석론	전망이론	텍스트분석론
연구 방법	실험설계, 삼원공변량분석	실험설계, 분산분석	내용분석, 매체간 비교분석	실험설계, 분산분석	내용분석, 뉴스프레임의 변화 분석, 언론규범의 제시
표본 및 데이터	560명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남녀 대학생 (평균연령 21.9세)	남녀 대학생 434명	2008년 5월 1일~7월 31일 블로그와 독립형 인터넷 매체의 한·미 식고기 협상 내용을 다룬 글을	임의표집한 462명의 남녀 18세~71세 (평균연령 30세)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를 통해 수집한 총 390건의 김치파동 관련 뉴스기사
독립 변인	손실/이득 프레임; 확실/불확실 프레임; 시각된 위험 등	이득/손실 프레임	인지적 프레임(주제적, 에피소드적 프레임; 추상적, 구체적 프레임; 원인, 해결 프레임)	손실(부정적)/이득(긍정적) 프레임; 메시지 지향성	주제중심적, 사건중심적 프레임; 파동의 경제적 결과를 강조하는 프레임, 사건 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프레임, 정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책임 프레임
종속 변인	방사선조사식품 확대허용에 대한 피험자의 동의 정도	현할 관련 건강위험 커뮤니케이션 태도 (행동의도, 행동의지, 회피태도, 회피의도)	(독립/종속변인 구분 없음)	고통안전 공익광고에 대한 태도 및 안전운전 의지	사건 사고의 대책을 논의하는 프레임, 정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는 책임 프레임
조절 변인	없음	4가지 공중집단	매체(블로그와 독립형 인터넷 매체)	운전자집단/비운전자 집단, 성별	없음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프레임 효과	결과 프레임의 경우, 손실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었고, 우연성 프레임의 경우, 확실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었음	부분적으로 회피태도에서 손실 프레임 효과의 상대적 우위가 발견되었음. 공중집단 중 효능집단이 가장 적극적 행동의도를 보여줌(조절효과)	연급 없음	전체적으로 긍정적 프레임이 더 효과적이거나, 조절변인에 따른 차이가 발견됨	연급 없음
발견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인지적 프레임(주제적, 에피소드적 프레임; 추상적, 구체적 프레임; 원인, 해결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주제중심적, 사건중심적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대책 프레임, 책임 프레임

연구	박경숙(2002)	이종민·류춘렬·박상희(2007)	박유식·경중수(2002)	조형오(2000)	조형오·김병희(2000)
학술지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보	광고학연구	광고학연구	광고학연구
저자의 직업적 배경	언론홍보학과 교수	언론정보학부 교수들, 언론학석사	경영학부 조교수, 강사	광고학과 교수	광고학과 조교수, 광고홍보학과 전임강사
주요 이론	텍스트분석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전망이론
연구 방법	텍스트분석론, 언론규범의 제시	실험설계, 공변량분석	실험설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실험설계, LISREL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실험설계
표본 및 데이터	2000, 2001년 KBS, MBC, SBS TV 의약분업 관련 저녁 뉴스 전체	실험 1: 대학생 147명 실험 2: 대학생 187명	665명의 남녀 대학생	291명의 고등학교 3학년 진학예정자 남학생	서울 및 청주에 소재한 대학의 259명 대학생 남녀
독립 변인	권위주의 정책 뉴스 프레임; 대항적 뉴스 프레임	손실/이득 프레임, 개인적 관여도, 사전태도, 상황적 관여도	손실/이득 프레임, 개인/공공 대상 소구, 정보제공/이미지제공	손실/이득 프레임 등	손실/이득 프레임
종속 변인		금연에 대한 사후태도변화	환경 및 보건이슈 관련 공익광고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	흡연태도 변화	운동에 대한 태도
조절 변인	없음	개인적/상황적 관여도	없음	없음	비만개연성, 메시지 소구방향 (신체소구/심리소구)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광고태도, 흡연속성신념의 이중매개	없음
프레임 효과	없음	개인적 관여도가 조절하는 경우 프레임 간의 효과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나, 상황적 관여도가 조절하는 경우 효과 차이가 유의미함	손실/이득 프레임 효과 차이가 없음	메시지 프레임에 따라 매개효과 경로가 달라짐	조절효과에 따라 달라짐
발견된 프레임	권위주의 정책 뉴스 프레임; 대항적 뉴스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없음 (전제된 프레임)

연구	박성희(2006)	정의철(2008b)	정의철(2008a)
학술지	한국언론정보학보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지자의 직업적 배경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언론광고학부 교수	언론홍보학부 전임강사
주요 이론	텍스트분석론	텍스트분석론	텍스트분석론
연구 방법	질적 프레임 분석, 언론규범 제시	질적 프레임 분석, 주류 및 대안지널리즘 간 해석의 프레임 비교분석	질적 프레임링 분석, 담론분석, 인터뷰
표본 및 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안전지수를 참고해 선정한 11건의 식품안전사고 관련 신문기사	뉴욕 타임즈의 AIDS 관련 63개 뉴스 기사, 사실, 칼럼과 대안적 매체 기사: 2000년 1월~2001년 12월	카인즈 검색을 통하여 추출한 HIV/AIDS 관련 뉴스 151개: 2005년 7월 1일~2007년 6월 30일
독립 변인	기사의 프레임(책임소재, 갈등,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확산 프레임); 행위자 프레임; 각 행위 주제 간 이분법적 프레임	사회정의, 제네릭 약품, 자비로운 도움, 의료적 인종차별, 무역 분쟁, 테러리즘, 문화적 침묵의 프레임 (독립/종속변인 구분 없음)	2005년 7월 1일~2007년 6월 30일 지원감동프레임, 사건사고프레임, 인권프레임, 위기프레임, 교육예방프레임, 생의학프레임, 사회경제역사프레임, 정책프레임
종속 변인	식품 섭취량 급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조절 변인	없음	주류/대안 저널리즘	없음
매개 변인	없음	없음	없음
프레임 효과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고 위험을 증폭시킴; 독자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넘김; 확대해석을 가져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	뉴욕 타임즈는 AIDS를 타자의 질병으로 묘사하는 반면, 대안적 신문은 사회정의의 비평적 안목을 드러냄	언급 없음
발견된 프레임	기사의 프레임(책임소재, 갈등, 인간적 관심, 도덕성, 경제적 결과, 위험확산 프레임); 행위자 프레임; 각 행위 주제 간 이분법적 프레임	사회정의, 제네릭 약품, 자비로운 도움, 의료적 인종차별, 무역 분쟁, 테러리즘, 문화적 침묵의 프레임	지원감동프레임, 사건사고프레임, 인권프레임, 위기프레임, 교육예방프레임, 생의학프레임, 사회경제역사프레임, 정책프레임